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에 대한  
교사의 경험 탐색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최혜원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에 대한  
교사의 경험 탐색

권 경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최혜원

# 인 준 서

최혜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긍정적인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부정적인 경험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 만 1, 2세 영아반 실외 모래놀이 시간에 1회 30분-40분씩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현장노트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만 1, 2세 영아와 영아반을 담당하여 지도하며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 해 본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2018년 11월부터 1월까지 총 16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별로 각 2회씩, 1회 40분~6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신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 심층면담, 연구자 현장노트, 사진촬영, 일일보육일지와 주간교육계획안 등의 문서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인 읽기와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별로 범주화하여 해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긍정적인 경험은 즐거움 공유, 영아의 호기심 확장에서 오는 기쁨, 영아의 성장에서 오는 뿌듯함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실외에서 모래를 만지고 던지며 즐거워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뿐 만 아니라 모래놀이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영아와 함께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모래놀이 시간을 통해 영아들의 호기심이 주변으로까지 확장되어 자연스럽게 놀이 공간이 넓어지고, 영아 스스로 직접 자연물을 탐구, 채집하는 모습 등이 관찰되면서 교사로서 기쁨과 보람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모래놀이 시간에 나타나는 영아들의 자연스럽게 다양한 변화를 발견하면서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함께 느낀다고 하였다.

둘째,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부정적인 경험은 모래놀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긍정과 부정의 양가감정, 활동 마무리에 대한 부담감, 모래의 청결에 대한 염려 및 역할 수행에 대한 강박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모래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교차가 반복되어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자조기술이 부족한 영아들의 청결을 혼자 감당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모래 청결에 대한 염려, 영아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지켜보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뭔가 해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강박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6
<b>II. 이론적 배경</b> .....	7
1. 모래놀이 .....	7
1) 모래의 특성 .....	7
2) 모래놀이의 교육적 가치 .....	9
2. 모래놀이와 영아발달 .....	10
1) 영아의 발달특성 .....	10
2) 모래놀이와 영아발달 .....	15
3. 영아교사 .....	17
1) 영아교사의 중요성 .....	17
2) 실외 모래놀이에서의 교사 역할 .....	19
<b>III. 연구방법</b> .....	22
1. 연구 참여자 .....	22
1) 연구 참여 어린이집 .....	22
2) 연구 참여 학급과 영아 .....	23
3) 연구 참여 교사 .....	24
2. 연구절차 .....	29
1) 예비연구 .....	29

2) 본 연구 .....	30
3. 자료수집 .....	31
1) 참여관찰 .....	31
2) 심층면담 .....	31
3) 연구자 현장노트 .....	33
4) 기타자료 .....	34
4. 자료 분석 .....	34
<b>IV. 연구결과 및 해석 .....</b>	<b>36</b>
1.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긍정적 경험 .....	36
1) 정서적 즐거움의 공유 .....	36
2) 영아의 확장된 호기심에서 오는 기쁨 .....	40
3) 영아의 성장에서 오는 뿌듯함 .....	45
2.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부정적 경험 .....	50
1) 모래놀이 진행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과 부정의 양가감정 .....	50
2) 활동 마무리에 대한 부담감 .....	53
3) 모래의 청결에 대한 염려 .....	55
4) 역할 수행에 대한 강박 .....	59
<b>V. 논의 및 결론 .....</b>	<b>64</b>
1. 논의 .....	64
2. 결론 및 제언 .....	72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 학급 하루 일과 .....	23
<표 2> 영아의 일반적 배경 .....	24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 .....	25
<표 4> 면담 질문목록 .....	3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놀이는 영아기 생활의 전부이다. 영아는 놀이하면서 주변의 다양한 생활 세계를 경험하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이 시기에 개발된 능력들은 이후의 발달 과정에서 보다 정교화 된다(양화숙, 2010). 그러므로 교사들은 영아들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발달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를 위해서는 놀이 경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전남련, 김재환, 성은숙, 이은임, 김기선, 이효수, 엄은옥, 2013).

놀이는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 실내놀이와 실외놀이로 나눌 수 있다(신동주, 양연임, 2003). 영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실내·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영아들은 실외놀이에 가장 많은 흥미를 느끼고 실외놀이 시간을 매우 기다린다(이주은, 2004; 이현경, 2003; 정은경, 1999). 이는 실외놀이에 대한 영아들의 관심과 흥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내 활동과 구별되는 실외놀이만이 갖는 특징은 다양한 날씨, 여러 가지 소재의 지표면, 탁 트인 개방감, 진흙·물감 등의 사용에 대한 자유로움, 동물과 식물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Kern & Wakeford, 2007; Stephens, 1993, 한은희, 2015, 재인용). 따라서 교실에서 진행되는 실내 활동에 비해 실외놀이는 더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실내 활동과는 다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Kern & Wakeford, 2007; Stephens, 1993). 또한 다양한 자연적 재료와 놀잇감을 통해 모든 감각적 탐색과 경험의 기회

를 가질 수 있고 모래와 물, 공기와 같은 물리적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등의 중요한 학습 경험을 영아들에게 줄 수 있다(Perry, 2003).

실외는 공기, 햇빛, 바람, 소리, 냄새 그리고 동물, 식물 등 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영아들은 실외놀이 영역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으로부터 다양한 감각적 탐색 및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신체, 정서, 사회성, 언어, 인지발달 등 영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 시킬 수 있다(임재택, 하정연, 조채영, 2002). 더욱이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아들에게 실외놀이는 마음껏 뛰어놀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영아기에 가장 필요한 경험이다(이숙재, 이봉선, 2007). Rivkin(1995)은 실외놀이를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타고난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을 실외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현경, 2003, 재인용).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실외활동은 인간의 본능적 요구라는 것이다.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중에서 모래놀이는 영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이다(천은영, 2005).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래놀이는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편안한 놀이이다. 왜냐하면 모래는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놀잇감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미, 2004).

무엇보다도 모래는 발산적이며 자연적인 놀잇감으로 정해진 규칙과 사용방법이 정해진 구조성 높은 장난감들에 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Pepler & Ross, 1981, 손현미, 2012, 재인용). 또한 모래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가능한 가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무형의 재료이다(이영일, 이정숙, 양승희, 2010). 따라서 아직 대소

근육의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영아들에게 모래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과 촉각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놀잇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에 있어 모래놀이를 통한 다양한 경험은 영아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송미경, 2008). 모래놀이는 영아에게 탐색과 놀이경험을 통하여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고 상상하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손현미, 2012). 또한 모양이나 놀이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 모래를 가지고 노는 모래놀이는 그 자체만으로 재미와 흥미를 일으키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놀이 실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므로 영아들에게 정서적으로 만족감과 즐거움을 준다(김경연, 1999). 이에 영아들은 모래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성인 공격성, 불쾌감, 긴장 등의 부정적 감정과 일상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며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건전한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다(강나리, 2013). 뿐만 아니라 무정형성, 비구조화된 특성의 모래를 가지고 놀이하는 과정 속에서 영아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만들면서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 나아가서는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이숙재, 2010).

이처럼 모래놀이의 교육적 가치가 큰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래놀이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모래상자놀이를 통한 모래 놀이의 치료적 가치를 논하는 연구들(곽희숙, 2003; 소경란, 2002; 유명순, 2007; 함경희, 2003)과 모래놀이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아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자발적인 행동과 협동하는 태도들이 증가하여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진옥, 1986), 모래놀이 활동에서 교사개입과 보조자료 활용이 유아의 사회성발달, 정서 발달, 수학적 성취, 과학적 탐구 능력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천은영, 2004)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모래놀이 활동 시 물과

보조자료의 제시가 유아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지민, 2006), 모래놀이에서 소품 및 물을 제공하였을 때 유아의 놀이 참여도와 구성 및 극화놀이가 많아 나타난다는 연구(양현주, 2003)와 모래놀이를 통한 상상놀이가 유아의 보존 및 조망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정낙숙, 1986)등이 이루어졌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모래놀이 선행연구는 실내 모래놀이 활동이 만 2세 영아의 놀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놀이의 폭을 확장 해 영아의 발달을 돕는다는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박태희, 2015)와 만 2세 영아의 모래놀이 과정과 경험이 어떠한가를 분석한 연구(손현미, 2012)와 실외 모래놀이·물놀이 활동이 감정표현과 놀이 참여 요구에 대한 언어 표현을 증가시키고, 영아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이명희, 2017)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래놀이가 영아의 놀이성과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만 2세 영아반의 모래놀이 과정과 경험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모래놀이 지도에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경험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실외 모래놀이에서 영아들의 자유로운 놀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할 때 교사는 영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외놀이 환경을 제공하며, 모래를 이용하여 편안하게 놀이 할 수 있도록 모래놀이에 필요한 도구와 놀잇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살아 있는 환경으로서 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격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영아의 반응을 수용하고 확장하는 양방향적이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김나영, 2001; 박찬옥, 구수연, 이옥임, 2009). 영아의 질문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답을 해 주어야 하는 교사의 역할(김희성, 2015)은 실외 모래놀이에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실외놀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김수경, 2000; 양화숙, 2010; 이현경, 2001). 양화숙(2010), 전수경(2008), 지현숙(2012)연구에서 모두 1순위로 영아들의 안전문제로 인하여 교사로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외 놀이 시설 부족,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실외놀이 사전 준비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외놀이를 기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류숙란(2013)과 한은희(2015)는 어떤 발달 시기보다도 개인차가 두드러지는 다수의 영아를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현실에서 실외놀이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외놀이에서 갖게 되는 교사의 어려움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래놀이에서 지도과정에서 영아 교사가 가지는 경험을 다각적으로 살피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가지는 교사의 다양한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는 영아를 지도하기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걱정에도 영아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욕구를 먼저 생각하여 놀이의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이주은, 2004). 무엇보다도 교사는 모래놀이에서 안전사고에만 치중하는 상호작용보다는 영아의 모래놀이를 격려하는 다양한 상호작용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고 보육 환경의 문제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최진영, 2016). 따라서 영아 실외 모래놀이에서의 교사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지를 모색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1, 2세 영아반의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하면서 교사가 느끼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영아 실외 모래놀이 운영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이 상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긍정적인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부정적인 경험은 어떠한가?

## Ⅱ. 이론적 배경

### 1. 모래놀이

#### 1) 모래의 특성

모래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형태변화를 시킬 수 있는 무정형이라는 특성과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비구조적이라는 특성을 가졌다. 이러한 무정형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래를 영아들이 자신의 호기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하게 모양을 구성할 수 있고 구성된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활동이 모래놀이이다. 이러한 모래놀이에 사용하는 재료인 모래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성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하므로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매체이다(김정미, 2004).

모래는 자연친화적 놀잇감으로 영·유아의 실외놀이 재료로써 나이나 성에 상관없이 폭 넓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모래는 영아에게 친숙하고 중요한 자연물이자 놀잇감이라 할 수 있다. Pepler & Ross(1981)는 모래나 진흙과 같이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연적인 자료는 용도가 제한된 구조화된 자료들과 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함으로써 상상놀이를 자극한다고 한다(김순정, 2008, 재인용).

모래가 놀잇감로서 가진 특성은 첫째, 모래는 감각을 자극하는 놀잇감이다. 영아가 모래를 움켜잡아보고, 그릇에 담았다 쏟아보는 등의 감각적 경험을 함으로써 영아의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김경

연, 1999). 모래는 알갱이가 뚜렷하게 잘 보이며 만졌을 때 꺼칠꺼칠하거나 부드럽고, 색깔이 하얗고 노랗거나 검고 반짝이기도 한다. 그리고 날씨와 기후와 같은 자연현상에 따라 색깔이 변하기도 한다(최인숙, 2000).

둘째, 모래는 매우 유동적인 놀잇감으로써 물처럼 여기 저기 담아 볼 수 있으며 물보다는 통제가 용이하다는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래는 ‘무정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영아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된다. 사용 방법이 다양하고 용도가 제한적이지 않아 상상놀이를 자극하게 된다(김순정, 2008, 재인용).

셋째, 모래는 사용 용도가 매우 다양한 비구조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모래는 정해진 규칙과 사용방법이 정해진 구조성 높은 장난감들에 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모래는 발산적이며 자연적인 놀잇감이다(Pepler & Ross, 1981, 재인용). 특히 모래는 활용방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놀이재료 중에서 활용도가 매우 다양한 비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모래는 놀잇감으로써 매우 훌륭하고 매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오현경, 2012). 무엇보다도 모래는 교육적이고 자연물의 하나로써 영유아들의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놀잇감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들은 모래놀이 영역에서 모래를 만지고, 움켜쥐고, 뭉치면서 촉각적 자극을 통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유아들의 전인 발달은 촉진한다.

즉, 모래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비구조적이며 개방적인 놀잇감으로 영유아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어 즐거움과 재미를 주고, 모래의 특성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통해 감각을 자극하는 영유아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최고의 자연 놀잇감이라 할 수 있다.

## 2) 모래놀이의 교육적 가치

모래놀이는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데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놀이이다. 여러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모래놀이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교육적 가치가 크다.

모래놀이의 가치를 밝힌 문헌들을 보면 모래는 무한대의 조작적 특성, 결합의 특성,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놀이할 수 있다고 하였다(Johnson, Christie & Yawkeys, 1987). 모래와 같은 자연적인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래놀이를 하면서 새로운 놀이 방법을 발견한다. 이로 인해 영아들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발달 되고,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촉진되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김경연, 1999).

모래놀이를 통해 영아는 스스로 자유롭게 탐색 및 놀이를 하면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고, 다양한 감각 활동을 한다. 감각 능력의 향상, 호기심 유발, 과학 및 수학적 기초개념, 소근육 발달 향상, 안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등의 교육적 의미를 가지게 되며, 또래 간의 의사소통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성, 언어, 정서 발달 등의 전인 발달을 이루게 된다(최진영, 2016).

오현경, 홍용희(2012)는 대리만족 및 내적치유를 하고 쉼을 누리는 장소가 모래놀이터이며 모래는 마법처럼 신기한 세상을 열어주는 도구이자 모래놀이에서의 경험은 유아들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모래놀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실외 모래놀이 환경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보람(2012)은 유아들이 구성물을 견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서기도 하

며 힘을 과시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장소가 모래 놀이장이라고 하였고, 모래놀이에서의 자발적이며 즐거운 상상놀이 경험은 유아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르며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모래놀이를 하면서 과학의 과정을 경험하여 과학적 개념이 형성되고 유아의 과학 탐구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강나리(2013)은 실외 모래놀이 활동은 유아들이 자연을 접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자신의 정서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활동으로서 모래놀이가 가치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은혜(2009)은 다양한 주제를 통한 모래놀이 활동을 사회성의 하위 요인 중 개인정서 조절능력과 유치원 적응능력에 영향을 주지만 대인관계 형성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명희(2017)는 실외 모래놀이 활동을 통해 우호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크게 증가하고 적대적 상호작용과 언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 의사소통이 감소하면서 일과 중 실내 자유놀이에서의 또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즉, 모래놀이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무정형의 특성을 지닌 모래라는 자연적인 놀잇감을 통해 영아의 신체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을 돕는다. 이와 같이 모래놀이는 영아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활동임을 알 수 있다.

## 2. 모래놀이와 영아발달

### 1) 영아의 발달특성

영아기는 표준보육과정에서는 0세에서 2세까지를 보고,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보고 있다. 영아기는 발달적 측면에서

전 생애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며 발달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영아기는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이 급속도로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결함은 이후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영아기의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박나래, 2016).

이러한 영아기의 적절한 발달을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영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발달과정이나 각 연령에 따른 영아 발달수준에 대해 인지해야 올바른 보육 및 교육실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희진, 김언아, 홍희란, 2004).

영아기에는 다른 시기보다 신체적 성장과 인지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며 전반적으로 다른 발달과 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진다. 신체발달은 영아의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주도하는 발달영역으로 매우 중요하다. 영아기에는 자발적 운동과 탐색하는 놀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놀이를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느낌으로써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한계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장영희, 2000). 영아는 신체발달을 통해 주위 환경 속에서 사물을 접하고 탐색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탐색할 수 있는 세계가 더욱 확장되며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의 폭도 넓혀나간다(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 2005). 따라서 다른 영역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체운동 발달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감각 자극과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실내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영아는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성인이나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차 다른 형태의 놀이 활동을 시작한다. 영아들은 사물을 가지고 놀거나 사람들과 놀이를 하는 동안 뇌 발달을 자극하여 인지를 발달시킨다

(Wellhousen, 2003). 부모들은 영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놀이 상대가 되는데, 영아는 부모와 놀이를 하면서 신체를 접촉하고 함께 놀이하는 동안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애착과 성장을 촉진시킨다. 성인과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해 영아의 인지가 자극받아 발달하게 된다.

영아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며 출생 후 4일 된 아기도 엄마와 타인의 말소리를 구분한다(박나래, 2016). 영아가 처음 사용하는 언어인 울음이나 옹알이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영아의 울음이나 옹알이에 성인의 적절한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문법과 의사소통 규칙을 이해하게 된다. 영아기의 언어발달과정은 대부분 비슷하나 언어를 획득하는 시기에는 개인차가 있다(조성연, 이정희 외, 2005).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영아들의 언어발달 촉진을 위해서 영아가 다양한 사물과 넓은 세상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어야 하며 영아와 자주 대화함으로써 언어 상호작용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바람직한 모델링을 보여주어야 한다(김희진 외, 2004). 부모나 교사는 바람직한 언어적 모델이 되어 영아가 성인을 통해 바른 언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놀잇감과 환경을 제공하여 영아가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김중근, 2005). 영아기의 언어발달은 여러 기초지식 내용과 기술을 익히는 데 기본이 되므로(이영자, 2004) 영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적이며 개방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격려 해 주어야 한다.

영아의 사회성은 출생 직후 주 양육자와의 만남을 통해 애착형성을 하고, 점차 주변으로 상호작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발달되고 만 1세 이후 혼자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점차 또래와의 접촉 할 기회를 갖게 되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발달시킨다(김희진 외, 2004). 영아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장해나가는 사회적인 존재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자신이 타인의 생각과 행동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개념을 서

서히 형성하며 사람과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세상을 알아가게 되고 지식을 인식 할 수 있게 된다. 점차 사회를 인식하면서 사회 속에서의 규칙, 방법,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기술 등을 익히게 된다(여인우, 2014).

영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인적 환경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상호작용 등이 중요한데 출생 후 만 2세경에 이르기까지 주로 양육자와 사회성 발달은 관련이 있다. 1세가 된 영아의 사회적 반응은 더욱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분명 해지고 양육자와의 관계도 더 깊어 저서 양육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관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문기화, 2012).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방어는 모습도 보인다. 이 시기는 잦은 감정의 변화로 스스로 해보려고 하거나 성인에게 의존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상반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김나영 외, 2005; 조성연 외, 2005). 자신의 성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면서 자아개념이 강해지는데 자신의 성과 일치 하는 것을 선호하며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인식하고 영아 자신도 엄마, 아빠의 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김중근, 2005).

2세가 되면 자신에 대한 인식발달과 자신과 타인의 관계 개념 형성이 시작한다. 주로 사회적 관계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만 머무르다 친구, 교사, 더 나아가서는 주위 환경과 공동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 범위를 확대한다. 1세경에는 소유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내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하기는 하나 소유욕이 매우 강하여 나눠 쓰는 개념을 갖지 못하고 2세경에도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으나 점차 판단과 규칙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고 여유롭고 긍정적으로 용납 할 수 있는 태도가 생긴다(김중근, 2005).

점차 또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2세가 되면 혼자 놀이보다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놀이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성장시켜 나가게 된다(성영혜 외, 1999).

영아에게 정서는 희로애락의 내면적 감정이며, 이를 표현하는 정서적 반응은 단순한 감정표현 이외에 욕구, 충동, 신체적·생리적 반응 등을 포함한다(성영혜 외, 1999). 영아의 정서발달은 배고픔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 충족에서부터 시작되며, 정서의 발현은 영아기에 완성되는데 대부분 2세 끝 무렵까지는 성인과 같은 거의 모든 정서가 나타난다.

기본적인 정서인 행복, 혐오, 놀람, 슬픔, 분노, 공포가 형성되고 자아감을 해치거나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 의식적 정서인 당혹감이 표현된다. 또한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과 같은 자기 평가적 정서는 자기 인식과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규칙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서이다(이정미, 2010).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영아기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8개월에서 10개월이 되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점차 자기 통제력이 생기고,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이 발달하면서 감정이입 능력도 생기면서 친사회적행동도 함께 나타난다(곽금주 외, 2005). 2세 말경에 영아는 표정과 상황단서를 사용하여 정서를 이해하는데 이 시기에 영아가 주양육자 및 주위 인적환경들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신뢰감 형성은 영아가 성장하는 동안 전반적인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세상에 대한 신뢰감과 인적환경과의 애착형성은 영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박나래, 2016).

이상과 같이 영아는 주위 환경 속에서 사물을 집하고 탐색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주변 성인이나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차 다른 형태의 놀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영아기 시기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과 경험을 제공 해 주어,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모래놀이와 영아발달

모래놀이를 하는 동안 영아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이한다. 모래놀이는 다양한 모래놀이 도구를 사용하여 소근육이 발달되고, 삽으로 땅을 파거나 모래를 담아 옮기면서 대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된다. 모래놀이에서 모래를 다독여보고, 그릇에 담았다가 쏟아 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모래를 집어보는 놀이를 하면서 촉감을 자극시키고, 모래놀이를 하면서 모래가 그릇에 담거나 쏟아 질 때 들리는 소리로 인해 청각이 자극되며 모래로 만든 구성물을 감상하며 시각을 자극시킨다. 이와 같이 모래놀이는 대·소근육 발달 및 눈과 손의 협응력 등 감각 기능이 촉진된다(이숙재, 2010).

모래놀이를 경험할수록 내용이 복잡해지고 조직화되면서 상징놀이로 발전한다(장영희, 1991). 모래놀이를 통해 영유아들은 마른 모래와 젖은 모래의 특징, 즉 마른 모래가 젖은 모래보다 가볍고 마른 모래는 바람에 잘 날리지만 젖은 모래는 날리지 않으며, 모래가 물에 젖으면 색깔이 진하게 보인다는 사실 등을 인지한다(이숙재, 2010). 모래놀이를 통해서 모래가 변화되는 과정 탐색, 구성물의 형태 비교, 모래의 양을 측정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고 통합하여 발달시켜 주는 경험을 제공한다.

모래가 활동자료로서 갖고 있는 특성인 비구조화된 특성, 무정형성은 영아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 더불어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이숙재, 2014). 즉, 영아들은 모래놀이는 모래로 형태를 구성하여 역할놀이를 경험함으로써 창의력이 발달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구성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모래놀이를 하면서 영아들은 또래나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며 언어발달도 일어난다(김순정, 2008). 영아들은 모래놀이를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놀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언어 능력이 발달된다. 또한 모래를 가지고 놀이하면서 쓰기의 기초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이숙재, 2010). 자신이 만든 구성물에 이름을 만들고 붙이면서 상상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놀잇감을 다른 사물로 생각하거나 역할에 맞게 언어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면서 어휘력도 증가한다. 또한 모래의 무정형의 특성은 때때로 영아들로 하여금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게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놀이 행동 또한 영아들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손현미, 2012).

모래놀이터에서는 집단놀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놀이 경험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모래놀이는 사회관계를 시작하고 놀이를 통해서 타인과 양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응과 상호작용의 기회가 증가한다. 또한 타인의 놀이를 모방하는 기회를 통해 놀이 탐색과 새로운 놀이 방법을 학습하게 하고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가지며 함께 규칙을 지킴으로써 남과 더불어 즐겁게 생활하는 능력이 증진된다(이숙재, 2010).

모래놀이는 안정적인 정서발달과 영아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가장 좋은 자연적인 놀잇감 중의 하나인 모래를 사용한다. 영아들은 공격성, 불쾌감, 긴장 등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모래놀이를 하면서 감소되고, 영아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도 해소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 이로 인해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전한 정서를 발달시킨다(강나리, 2013). 모래는 사용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모래를 파고, 옮기고, 쌓는 활동에 몰입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건전한 정서가 발달된다(이숙재, 2010). 즉, 모래놀이는 모래의

무정형 특성으로 인해 자유롭게 만들고 다양하고 반복적인 시도가 가능하여 좌절감을 줄이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감정 및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자아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모래놀이는 비구조적이며 무정형이라는 특성을 지닌 모래라는 자연적 놀잇감을 활용하여 영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적, 정서 발달을 돕는 교육적으로 가치가 높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3. 영아교사

#### 1) 영아교사의 중요성

영아기에는 성인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시기로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환경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는 시기이다. 특히 인적 환경으로서의 교사는 영아의 모든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일상적 양육, 교사와 영아와의 상호작용, 또래 간의 상호작용, 흥미유발과 호기심에 대한 교사의 발문 등 문서화 되어 있지 않지만, 보육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과정이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요소이다(보건복지부, 2013).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관에 다니는 영아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사는 영아가 부모 외에 처음 만나는 최초의 성인으로서 기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영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조미숙, 2015).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영아기에는 인적환경으로서의 교사는 영아의 모든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에 영아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김나영, 이경열, 정옥호, 홍계옥, 2005). 영아교사는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애착과 신뢰를 형성을 기반으로 기관에서 끊임없

이 상호작용을 한다.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안정적으로 일과를 보내는 데 교사와의 신뢰로운 관계형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배미연, 이순복, 2014). 유지연, 황혜정(2015)는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고, 오수정, 김명순(2019)은 교사와 영아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수록 영아의 놀이행동과 상징놀이 수준을 높였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영아교사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영아들이 교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배미연, 2014). 또한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인지발달과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교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인 능력을 갖게 해 주고,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이오레, 2018).

교사는 영아가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영아들의 질문에 대해 영아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영아가 질문하는 것은 영아가 교사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다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최진영, 2016).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질문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 주어야 한다(김희성, 2015).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영아에게 수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교사로서 높은 자질도 요구된다. 교사는 영아가 선택한 놀잇감과 놀이 방법을 인정하고 영아의 놀이에 적절하게 참여해야 한다. 영아의 놀이를 격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반응을 확장하고 수용하며 적극적이고 양방적인 상호작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에서도 영아 보육의 실행과 관련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여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

개개인이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 적절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는 보육과정운영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백혜리, 노은호, 황성원, 조미환, 박종옥, 이순영, 곽해경, 최효영, 2006). 이는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보육과정을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영아 교사는 영아기의 연령별 발달특성을 이해해야 영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하여 영아와의 애착과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주어 영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 따라서 영아 교사는 각 연령별 영아기 발달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한 교육제공 및 적합한 상호작용,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2) 실외 모래놀이에서의 교사 역할

실외 모래놀이는 교실 밖 자유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교사 역할이 중요시된다. 실외 모래놀이에서 적절한 교사개입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모래놀이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유아들의 호기심을 활발하게 유지하도록 도우며, 탐구하고자 하는 것을 격려해 주어 유아의 과학적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남미경, 이윤경, 2011). 또한 교사는 모래놀이 과정에서 유아들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유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시켜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창의성 발달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연화, 2014). 천은영(2004)의 실외 모래놀이 활동에서 교사 개입과 보조자료 활용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를 보면, 교사의 개입 및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 유아의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수학적취, 과학적 탐구 능력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실내에서 하던 지시나 규칙을 적용하기 보다는 실외놀이

공간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Frost, Wortham & Reifel, 2001). 실외놀이영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놀이 시설에 의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교사는 실외에서 모래 놀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실외활동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인식이 필요하다(강나리, 2013).

실외 모래놀이 지도 할 때 교사가 숙지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진옥, 1986). 첫째, 교사는 시간과 날씨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영유아가 모래를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원활하게 경험 할 수 있도록 모래에 습기가 있어야 함을 고려하여 놀이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실외 모래놀이 영역에서 날씨와 계절을 고려하여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놀이 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넷째, 모래놀이에 필요한 도구와 놀잇감을 실외 모래놀이 활동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영유아들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가능한 도구를 제공한다. 다섯째, 모래를 친구에게 뿌리거나 던지는 것은 위험한 행동임을 이해시키고, 실외 모래놀이 시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섯째, 실외 모래놀이를 하면서 상상력과 언어표현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사는 수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영아의 언어 표현력을 증가시키도록 돕는다. 일곱째, 실외 모래놀이영역은 위생 관리에 유의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실외 모래놀이는 실외놀이에서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영유아들이 자신의 호기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변형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실외 모래놀이임을 지성애(1998)는 제시하고 있다. 3 ~ 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침서(교육과학기술부, 2013)를 보면, 실외 모래놀이에서의 교사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아가 자발적으로 실외 모래놀이를 하도록 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놀이상황을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히 개입한

다. 둘째, 놀이를 진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토의한 후 합의하여 규칙을 정한다. 특히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외 모래놀이터에서는 자신의 뒤를 고려하지 않고 삽으로 또는 두 손으로 모래를 파거나 던지는 유아에게는 적절한 주의를 주고 눈에 모래가 들어갈 경우 손으로 비비지 말고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식염수로 씻어내도록 한다. 셋째,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소품을 제공한다. 넷째, 청결과 안전에 유의하고, 모래 안에 물길을 만든다고 하여 물을 많이 부어서 고이게 한 경우, 놀이를 마친 후 그 흙을 말릴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유아의 놀이를 확장하고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등의 다섯 가지의 교사역할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실외 모래놀이 영역이 제공되더라도 교사가 실외 모래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영아들이 다양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실외 모래놀이를 영아들의 발달과 안전에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행하여 영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우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실외 모래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 1) 연구 참여 어린이집

K 직장 어린이집은 서울시 S구에 소재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2000년에 개원하여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 총 13명 정원이며, 만 1세반 1학급, 만 2세반 1학급, 만 3세반 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 교직원은 총 5명으로 원장과 보육교사 3명, 조리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 참여 기관인 K 직장 어린이집은 보육실 3개, 조리실, 사무실, 유희실,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다.

K 직장 어린이집 영아들은 등원 후 오전 간식을 먹고, 교실에서 실내 자유선택활동을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모든 연령이 실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와 실외활동 시작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맑거나 흐린 날씨에는 실외놀이터에서 실외활동 및 모래놀이를 하며,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는 우산과 우비, 장화나 부츠를 준비하여 동네산책으로 실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날씨상황에 고려하여 매일 꼭 1시간정도의 실외활동을 지도하며, 어린이집에는 실외놀이터와 모래놀이터가 함께 구비되어 있다. 담임교사와 영아들이 실외놀이터로 이동하면 교사가 모래놀이 도구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꺼내주고, 영아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한다.

연구 참여 학급 하루일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 학급 하루 일과

시 간	활 동
07 : 30 ~ 09 : 30	등원 및 실내자유선택활동
09 : 30 ~ 10 : 00	오전간식
10 : 00 ~ 11 : 00	실내 자유선택활동 및 전이활동
11 : 00 ~ 12 : 00	실외활동 및 모래놀이
12 : 00 ~ 12 : 30	점심식사
12 : 30 ~ 13 : 30	양치질 및 낮잠 준비
13 : 30 ~ 15 : 30	낮잠 및 휴식
15 : 30 ~ 16 : 00	오후간식
16 : 00 ~ 18 : 00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및 귀가

## 2) 연구 참여 학급과 영아

본 연구 학급은 본 연구자가 담임으로 있는 만 2세반과 동료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만 1세반 영아반이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완전 참여 관찰자로 만 1, 2세 영아들의 실외 모래놀이 활동 모습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 참여 학급은 K 직장 어린이집의 만 1, 2세 영아반이며, 연구 참여 영아는 만 1세 2명, 만 2세 6명으로 총 8명이다. 연구 참여 학급인 만 1, 2세 영아반은 남아 3명, 여아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아들은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출생한 영아들이다. 연구 시작 기준으로 영아들의 평균 월령은 35개월이었으며, 월령이 가장 빠른 영아는 41개월이었고, 가장 늦은 영아는 22개월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사

용하였으며 연구 참여 영아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영아의 일반적 배경

	가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1	최OO	여	2016. 04	30~34개월
2	안OO	여	2016. 12	22~26개월
3	김OO	여	2015. 10	36~40개월
4	김OO	남	2015. 10	36~40개월
5	이OO	여	2015. 05	41~45개월
6	정OO	여	2015. 10	36~40개월
7	김OO	남	2015. 06	40~44개월
8	이OO	남	2015. 07	39~43개월

### 3) 연구 참여 교사

본 연구는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에서 느끼는 교사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만 1, 2세 영아반 담임교사를 맡아 실외에서 모래놀이 활동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와 연구 시점에서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8명을 면담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연구자가 재직 중인 기관의 동료 교사와 동료 교사들의 연계로 소개받은 영아반 교사 중에서 영아반 담임 경력과 연령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정보제공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반복적인 절차에 따라 면담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 동의서는 부록에 첨부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 교사들의 배경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

	연구참여자	연령	교사경력	영아반경력	최종학력	전공
1	A교사	44세	20년	8년	대학교졸	아동학
2	B교사	41세	3년	2년	대학교졸	아동학
3	C교사	36세	15년	6년	대학교졸	유아교육
4	D교사	31세	8년	4년	대학교졸	유아교육
5	E교사	30세	4년	3년	대학교졸	아동학
6	F교사	27세	8년	8년	대학교졸	유아교육
7	G교사	43세	18년	1년	대학교졸	유아교육
8	H교사	38세	11년	11년	대학교졸	영유아보육학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만 1, 2세 영아반 담임교사를 맡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 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며 연구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A교사

A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8년을 포함하여 총 20년의 교사경력을 가지고 있다. A교사는 아동학을 전공하였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주변의 권유로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영, 유아반 모든 연령을 맡아 본 경험이 있다.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 취득 후 시설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육교사로서의 생활이 더 보람되어 다시 어린이집 교사로 이직하였다. 이후 현

재까지 영아반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며 실외활동을 하면서 교사로서도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모래놀이를 지도하면서 소근육이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 매일 1시간씩 실외 및 모래놀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직 어린 영아들에게 여러 가지 모래놀이를 적극적으로 제시 해 주어야 하는 점과 교사의 개입으로 인해 창의성에 방해되지 않을 까하는 고민이 많다고 하였다.

### (2) B교사

B교사는 영유아보육학을 전공한 경력 3년 차의 교사로 만 1, 2세 영아반만 지도 해 본 경험이 있다. B교사는 실외 및 모래놀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모래 놀이가 영아들에게 흥미로운 활동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30 ~ 40분 실외 및 모래놀이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준비와 마무리,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아직 두려움이 많다고 하였고 눈과 입에 모래가 들어 갈까봐 걱정은 되지만 평상 시 흙과 모래를 만질 기회가 없어서 기관에서는 모래놀이를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 (3) C교사

C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주로 만 5세 유아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다가 고경력이 되면서 영아반을 맡게 되었고, 영아반에서의 보람과 행복감이 커져서 현재에는 영아반 담임교사로 계속 재직 중이라고 하였다. C교사의 교사 경력은 총 경력 15년이며, 만 1, 2세 영아반 담임 경

력은 6년이고 현재에도 영아반 담임을 하고 있다. C교사는 초임교사 시절부터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로서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모래놀이에 대한 영유아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모래놀이를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영아들의 소근육 발달, 또래관계 형성을 발견하여 매일 1시간정도 실외 및 모래놀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 (4) D교사

D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어린이집에서 재직하며 영, 유아반을 고루 맡아 재직했으며 총 경력 8년 중 영아반을 맡아 본 경험은 4년이다. 실외 활동의 필요성을 잘 알기에 매일 1시간씩 진행하고 있고, 모래놀이에서 느끼는 영아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잘 알기에 정리가 힘들어도 매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관에 모래놀이터가 있지만 안전사고와 원활한 놀이진행을 위해 교사와 영아 3~4명씩 모래놀이터에서 놀이를 지도한다고 하였다.

#### (5) E교사

E교사는 보육학을 전공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 관련된 일을 찾다 교사가 되었다고 하였다. 총 경력 4년 중 영아반을 맡아 본 경험은 3년이다. 담임교사를 맡아 매일 1시간동안 실외활동을 진행하며 공원을 산책하거나 놀이터에서 신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아들이 자유롭게 모래를 가지고 놀이하도록 하거나 소꿉놀이 도구로 역할놀이를 지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모래놀이가 영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모래를 통해 영아와 함께 어떤 놀이를 해야 하는 고민을 한 적이

많았고, 실외에서 진행 시 영아들이 좀 더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영아를 위한 모래놀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찾아볼 의향도 있다고 하였다.

#### (6) F교사

F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다가 어린이집 교사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총 경력 8년동안 영아반을 8년을 맡아 본 경험이 있고, 매일 실외활동을 30분정도 진행하고 있으나 영아들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영아들이 모래놀이에서는 적극적으로 놀이하기에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오감 중 특히 촉감발달에 모래놀이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아가 입에 넣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 모래놀이용 옷이 있거나 영아들이 입에 넣어도 안전한 재질의 모래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7) G교사

G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자연스럽게 교사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였다. 총 경력 18년 중 영아반은 1년만 담임교사로 경험 해 보았다고 하였고, 실외활동은 매일 30분정도 진행한다고 하였다. 산책이나 주제에 적합한 계획된 활동을 진행하고, 모래놀이에 대한 교사의 감정은 '신난다',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하며 형태가 없는 모래의 변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영아들의 창의성 발달에 좋다고 생각하여 영아반 대상 실외 모래놀이를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 어린 영아들의 안전과 위생, 청결과 관련하여 두려움이 있고, 모래놀이 활동 후 정리의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 (8) H교사

H교사는 영유아보육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취업하여 총 경력 11년 중 영아반을 11년 맡아 본 경험이 있다. 생활 주제와 관련 있는 활동이나 주로 신체활동으로 매일 30분씩 실외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영아들의 즐거움을 보며 교사로서 뿌듯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실외라는 공간에서 다른 활동으로 전환되고 영아들이 좋아하지만 활동 후 정리정돈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모래를 먹는 등의 안전사고로 인해 영아반 대상 실외 모래놀이의 필요성은 중간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생활 주제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영아들과 모래놀이를 더 많이 지도 해 볼 것 같다고 하였다.

## 2. 연구절차

### 1)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2018년 10월 13일에 본 연구 참여자가 아닌 연구자와 이미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집단면담 형식으로 연구자의 예상 질문 목록을 토대로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구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생각과는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구자의 질문과는 다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개인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의 내용을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비연구를 통해 면담 질문의 내용 및 방법, 시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수정 보완하고자 비형식적인 면담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예비연구를 통해서 질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주일간 연구 참여 학급의 참여관찰을 위해, 관찰한 내용을 현장에서 빠르게 메모하고 사진 촬영하는 훈련을 하고 관찰한 내용을 빠르게 메모하는 훈련 후 연구자가 무언가를 작성하는 모습을 영아들이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 2) 본 연구

참여관찰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8년 2월 22일까지 만 1, 2세 학급에서 담임교사 2인과 영아 8명을 대상으로 총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외 모래놀이를 진행 시 영아들의 행동 및 놀이 모습을 다각도에서 참여관찰이 이루어졌고 현장메모, 사진 촬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은 2018년 11월 3일부터 2019년 1월 26일까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2회씩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연구 참여자가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면담시간은 40분~1시간정도 진행하였다. 면담 시 연구자는 면담내용을 동의하에 전체 과정을 MP3로 녹음하고 녹음한 내용은 전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연구자의 생각, 느낌, 질문 등을 현장 기록 노트에 정리하였다. 면담이후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거나 면담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메일을 활용하였다.

### 3. 자료수집

#### 1) 참여관찰

본 연구는 영아의 실외 모래놀이에서 나타나는 영아들의 변화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로 실외 모래놀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참여관찰 하였다.

Van Manen(1994)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생활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경우 대화식 인터뷰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관찰은 영·유아의 경험에 접근하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관찰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 총 4개월간 총 28회, 1회 30-40분 정도씩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날씨 상황에 따라 실외 모래놀이를 하지 못하는 날을 제외하고 오전에 진행되는 실외 모래놀이를 1회 30분 정도 집중적으로 참여관찰 하였다. 실외 모래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관찰한 것을 수첩에 기록하고 동시에 영아들의 모래놀이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으며, 촬영과 기록된 것은 당일 전사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기록은 반복하여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 2) 심층면담

면담은 직접적으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지를 이용한 방법 등에서 오는 반응의 단점을 보완 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2006). 따라서 2018년 11월 3일부터 2019년 1

월 26까지 총 8명의 교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각 2회씩 총 16회의 1 : 1 개별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면담시간은 1회에 40분에서 1시간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 가까이에 위치한 카페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심층면담 시 연구 참여자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연구 참여자와는 자연스러운 면담을 위해 면담 시작단계에서 서로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영아들과의 하루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포(rapport)형성을 하려고 노력한 후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심층면담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 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 방식을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은 1차, 2차 이루어졌다.

1차 면담은 영아반 교사 경험, 교사를 하게 된 계기, 모래놀이에 대한 교사의 생각, 영아반 모래놀이 지도 경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2차 면담은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질문해야 할 사항과 함께 본 연구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영아반 모래놀이에 대한 인식 재질문, 모래놀이 지도 과정에서 교사로서 느꼈던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심층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함으로서 자세한 현장기록을 남겨 신뢰도를 높이고, 면담 후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면담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면담 전사본 A4용지 123장, MP3 파일 녹음 717분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선행연구와 예비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춰 작성한 질문목록으로 표 4와 같다.

<표 4> 면담 질문목록

구분	질문 내용
개인적 특성	- 만 1, 2세 영아반 담임교사를 맡아본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전공하셨습니다?
영아반 대상 실외 모래 놀이의 인식	- 영아들과 실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 실외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영아들과 주로 지도 및 진행 하는 실외활동은 무엇 이십니까? - 영아들과 실외 모래놀이를 어떻게 지도 및 진행 해 보셨습니까?
지도과정 에서 느끼는 경험	- 영아들과 실외에서 모래놀이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가 무엇이십니 까? - 영아 대상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하면서 교사로서 느끼는 긍정적인 부분은 무 엇이십니까? - 영아 대상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하면서 어려움은 무엇이십니까?

3) 연구자 현장노트

연구자는 심층면담 중 일어나는 교사들의 모습, 표정, 대화 내용을 가능한 빠르고 간략하게 연구자 현장노트에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한 후 면담 진행과정에 대한 반성 및 면담 내용 요약,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상황 및 관심을 끄는 사건, 맥락적 정보, 느낌, 연구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기술하기 위해 연구자 노트를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실외 모래 놀이터에서 참여 관찰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현장 노트에 메모를 함께 하였다. 수집한 현장노트는 총 28장이며, 연구자는 실외 모래놀이 활동 중 일어나는 영아들의 모습, 행동, 대화 내용을 가능한 빠르고 간략하게 연구자 노트에 작성하였다. 참여관찰이 끝난 후 당일 일어난 사건이나 느낌, 연구 주제와 관련된 생각에 대해 더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 4) 기타자료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 분석을 위한 참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K 어린이집의 주간교육계획안, 영아 관찰 기록지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A4 23장이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 심층면담 녹음 전사자료, 서면 면담 기록지, 참여관찰, 연구자의 현장 노트, 참여관찰 시 촬영한 사진 및 문서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수집 당일 전사를 위해 노력하였고, 심층면담 전사 시 내용 분석 중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이용한 서신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수집된 자료는 김영천(2006)이 제시한 질적 자료 분석의 일반적 과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연구자는 수집된 심층면담 전사본과 서신 면담 자료, 현장 노트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단어들을 추출하는 개방적 코딩 방법을 사용하였고, 도출된 단어들을 재구성하거나 범주화하여 반복적인 주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심층 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실외 모래놀이 지도에서 느끼는 교사의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의 2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도출된 주제들을 1차적으로 분류하였다. 이 후 각각의 사례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반복하여 읽어본 후 공통된 속성을 중심으로 하위범주로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하였다. 즉, 연구자는 초기 범주화 과정에서 연구문제에 따라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를 구성한 후, 하위개념들을 비슷한 유형별로 재구성하여 2개의 상위범주에 7개의 하위범주로 유목화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자가 도출한 분석 및 결론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해 내부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지도교수님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들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영아 대상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심층적으로 탐색 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교사들의 경험을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긍정적 경험

영아반 실외 모래놀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긍정적인 경험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즐거움의 공유, 호기심 확장으로 인한 기쁨,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한 뿌듯함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정서적 즐거움의 공유

교사들은 실외 모래놀이 시간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실외에서 모래를 만지고 던지며 즐거워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면서 영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영아들이 모래놀이를 정말 좋아해서 놀이터에 나가면 바로 삽이랑 그릇을 들고 모래놀이터로 가서 바닥에 앉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 진짜 재미있게 놀이하는데 영아들이 교실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놀이하니까 교사로서 뭔가 뿌듯함, 보

람도 느끼고 좋아요.

(D교사 면담, 2018. 11. 24)

바깥놀이 나가면 아이들이 알아서 바구니에서 모래놀이 도구 챙겨서 놀이를 시작해요. 제가 말을 하거나 놀이를 알려주지 않아도 재미있게 놀이하는 거 보면 신기하고 예뻐요. 그리고 모래놀이 할 때는 진짜 싸우지도 않아요. 모래가 많아서 그런지 케이크 만들어서 생일잔치를 매일 하는데도 웃고 진짜 재미있어 하는데 보고 있으면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나요.

(H교사 면담, 2018. 12. 22)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영아들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놀이와 다르게 스스로 놀이하고 놀이에 재미에 느끼고 웃으며 놀이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보면 교사도 즐거움과 재미를 함께 공유한다고 하였다. 교사로서 놀이를 이끌어주거나 주도하지 않아도 영아들 스스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 영아들이 많아 컸다는 생각과 함께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영아가 느끼는 즐거움이 교사에게도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된다고 하였다.

바깥놀이 나오면 모래놀이터로 먼저 와요. 한꺼번에 놀이하기 그래서 전 2 - 3명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모래놀이터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모래 떠서 담고, 케이크도 만들고 모래에 찍기틀로 찍기도 하고 놀이해요.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모래를 잘 떠지면 진짜 좋아하고, 손가락질이 저절로 잘 되니까 점심시간에 힘들게 가르치지 않아서 좋아요. 모래놀이를 하면 손가락질이나 주전자 따르기 등 기본생활습관이 저절로 형성되니까 좋아요. 그리고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들도 좋고, 저도 좋아요. 아이들이 행동 하나하나가 예뻐서 힘든 것을 잊게 되요.

(C교사 면담, 2018. 11. 17)

아이들이 모래를 쏟고, 옆고, 넣고 놀이하는데 간단한 활동임에도 재미있어하고 깔깔깔 웃으니까 저도 즐겁고 좋아요. 뒷정리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니까 계속 모래놀이를 하게하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보람도 있더라고요. 소꿉

놀이도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모래놀이터에서 더 많이 하더라고요. 또 마음대로 놀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뭐 하고 놀이하나 봐야 되고, 모래 담아야 되니까 바쁘지만 재미있고, 옷에 묻어도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좋고, 모래놀이하면서 상상놀이, 역할놀이, 감각놀이, 신체놀이가 다 들어가는 종합적인 놀이가 되어서 실외 모래놀이가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H교사 면담. 2018. 12. 22)

이와 같이 영아들이 도구와 모래를 활용한 놀이를 반복하면서 기본생활습관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실외에서 모래놀이를 지도할 때 더 활성화된 역할 및 상상 놀이가 이루어져 교사들도 ‘힘들다’보다는 ‘좋다’, ‘재미있다’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가장 좋아하는데 모래놀이도 생각보다 좋아해서 처음에 서로 하겠다고 몰려들기도 해요. 특히 적응기간에 모래놀이를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만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재미를 느끼면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해요. 만 1세반은 맨발로 나가기도 했어요. 발에 묻어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어떤 아이는 모래를 너무 좋아해서 교사 눈을 피해 주머니에 모래를 넣어 집에 가져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실에서는 교사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던 아이들이 모래놀이 때는 교사가 불러도 보지도 않고 몰입해서 놀이하는 것을 보면 진짜 귀여워요.

(A교사 면담. 2018. 11. 03)

초입 때는 모래놀이하면 눈에 들어 갈까봐, 먹을까봐 걱정 되서 제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이터 가서 놀고, 모래놀이도 하면 어린이집 적응도 더 잘 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는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기는 힘들어도 모래놀이 한 다음 날에는 엄마랑 떨어질 때 별로 울지 않으니까 꼭 하려고 해요. 모래놀이를 하면서 불안감, 긴장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재미있게 놀이하니까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가장 좋아하니까 저도 모래놀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B교사 면담. 2018. 11. 10)

이렇듯 교사들은 어린이집 일과 중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놀이들 중에 영아들이 모래놀이를 가장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적응기간에 모래놀이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재미를 더 크게 느끼게 되어 교사 자신도 모래놀이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모래놀이에 몰입하여 놀이를 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정리정돈의 부담과 청결 문제로 인해 모래놀이를 꺼려하던 교사들조차 모래놀이를 좋아하게 된다고 하였다.

부드러운 모래를 만지면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모래를 통해 놀이하면서 스트레스로 풀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어요.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공간 없이 자유롭게 놀이 할 수 있어서 실외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것이 좋아요. 눈에 모래가 들어갈까 봐 걱정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모래놀이에 집중하면서 자유롭게 놀고, 저도 함께 놀면서 아이들의 놀이에 제가 재미있게 참여한 기억이 있어요.

(E교사 면담. 2018. 12. 01)

모래가 거칠지 않고 마음대로 놀이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자연에서 놀이할 수 있어 좋고요. 자연환경에서 자연물을 가지고 친숙하게 놀이하고 생각보다 진짜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옷이 더러워진다는 생각이 앞서서 좀 그랬는데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니까 계속하게 했어요. 정리하기 힘들다, 모래가 더럽다, 눈이나 입에 들어갈까 봐 걱정된다는 감정이 재미있다, 즐겁다로 바뀐 것 같아요.

(D교사 면담. 2018. 11. 24)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처음에는 안전사고나 위생적인 측면으로 인해 걱정되는 놀이로 모래놀이를 인식하다가 영아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가 재미를 느껴 놀이에 참여하여 모래놀이를 더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즉, 영아들이 모래에 관심을 갖고 놀이에 몰입하면서 모래놀이라는 활동에 진정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교사들도 함께 즐거움을 느끼

고 그 즐거움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 2) 영아의 확장된 호기심에서 오는 기쁨

교사들은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아들의 호기심이 점점 확장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놀이하는 영아들을 볼 때 교사로서 기쁨과 보람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모래놀이 초기에는 모래에 대한 낯설음과 호기심으로 만져보려고 시도하다가 멈칫거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래놀이가 반복되면서 모래에 대한 영아들의 호기심은 점차 모래에 대한 친숙함과 놀이하는 즐거움으로 바뀌고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영아 : (유아들 놀이를 보고만 있다)

교사 : OO야, 이 손가락으로 오빠처럼 모래 떠 봐

영아 : (교사를 쳐다보기만 한다)

교사 :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래 뜨면 돼

영아 : (뒤로 한발자국 간다)

교사 : 모래 하기 싫어?

영아 : 응

교사 : 이렇게 손가락으로 떠서 하면 손에 안 묻는데?

영아 : (교사 옆으로 와서 컵을 잡는다)

교사 : 그럼 선생님이 모래 넣어줄게

영아 : (교사가 모래를 담을 때 손에 모래가 묻자) 아... (컵을 떨어뜨리고 손을 털다)

교사 : 손에 묻어도 괜찮아

영아 : 아니야

교사 : 손에 묻으면 선생님이 털어줄게. 이렇게 털면 모래 사라져 (컵을 준다)

영아 : (컵을 잡고 교사 옆으로 와서 본다)

교사 : 자, 선생님이 모래 담아줄게  
 영아 : (컵을 두 손으로 잡는다)  
 교사 : 이제 오빠처럼 케이크 만들까?  
 영아 : 응  
 교사 : 이렇게 컵을 뒤집으면 짠! 케이크다  
 영아 : 케이크  
 교사 : 케이크 또 만들어볼까?  
 영아 : 응 (교사 옆에 앉는다)

(만 1세 영아관찰, 2018. 10. 22)

영아 : (모래놀이터로 와서 서 있다)  
 교사 : OO야. 숟가락이랑 그릇 여기 있어  
 영아 : (숟가락과 그릇 받아서 모래놀이터에 앉아, 숟가락으로 모래를 떠서 그릇에 담는다)  
 교사 : 숟가락으로 모래 잘 뜨네? 우리 OO 많이 컸네  
 영아 : 응 (계속 모래를 담다가 오빠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본다)  
 교사 : OO도 오빠들처럼 모래에다가 나뭇잎 넣어볼까? 저기 나뭇잎 많아.  
 영아 : (일어나서 나뭇잎을 가지고 온다)  
 교사 : 나뭇잎 찾았네. 여기에다가 넣어봐  
 영아 : (모래그릇에 나뭇잎 넣고 숟가락으로 또 모래를 넣는다)

(만 1세 영아관찰, 2018. 12. 04)

실외활동을 나가면 미끄럼틀 타고 숟가락 들고 모래놀이를 하는 모습만 보이다가 자연물을 찾아 모래놀이에 같이 사용하고,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는 놀이터 나오면 놀이터 주변부터 둘러봐요. ‘오늘은 무엇이 있나’ 하고요. 달라지는 계절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야기 나누고, 사진으로 보는 것 보다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개미도 점점 사라지고, 꽃이 폼다가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도 발견하고,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보면서 가을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 지 아이들이 찾아와요. 정말 대단해요.

(A교사 면담, 2018. 11. 03)

위의 관찰 및 면담사례와 같이 모래놀이 초반에는 영아들이 모래에 낫설어하다가 모래놀이가 반복되면서 재미를 느끼고 주변과 자연물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놀이재료를 탐색 및 채집하여 활용하는 영아들의 변화에 교사들은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나무 열매를 찾아 모은 후)

영아 1 : 여기 뭐 있다. 선생님 이거 봐요. 저기 진짜 많아요

영아 2 : 선생님 나도 찾아왔어요

영아 3 : 나도 열매 갖고 싶다

영아 4 : 선생님 이거 뭐예요?

교사 : 나무 열매를 진짜 많이 찾았네? 이 열매는 감이야. 감

영아 1 : 감이요?

영아 2 : 나 감 먹어봤어요

영아 3 : 나도 먹어 봤는데. 나 이렇게 큰 거 먹어 봤어요

영아 1 : 엄마 갖다 줘도 되요?

교사 : 감 먹어 보았구나. 엄마 갖다 드려도 되지

영아 4 : 선생님. 나 진짜 큰 거 찾았어요. 애들아 이거 봐 내 것이 진짜 크지?

영아 2 : 선생님. 발로 밟으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교사 : 감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영아 1 : 뭐예요?

교사 : 감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

영아 3 : 씨앗?

영아 2 : 씨앗이요?

교사 : 응. 감 안에는 씨앗이 있어. 새로운 나무열매를 찾고, 감 안에 씨앗도 발견하고 정말 대단한데!

영아 1 : 대단하지요?

(만 2세 영아관찰, 2018. 11. 01)

위의 관찰사례와 같이 영아들은 단순히 모래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

래 놀이 도구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며 모래놀이에 사용할 자연물, 재료들을 직접 찾아 나서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으면 교사와 친구들을 불러 함께 탐색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발견을 통해 영아들이 흥미를 갖게 되면 교사도 함께 흥미가 높아지고, 대단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모래놀이를 하면서 나뭇가지나 나뭇잎 가지고 놀면서 재미있으니까 이제는 바깥 놀이 나가면 모래놀이 손가락과 그릇을 챙기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모래놀이에 사용할 자연물을 영아들이 찾아요.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관찰하고 모래와 섞어보고 물이 있으면 물에 모래를 넣어서 진흙으로 만들고, 눈이 있으면 눈이랑 섞고 영아반이라 과학영역이 없는데도 과학놀이를 하고... 유아반같이 놀이하는 모습 보면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E교사 면담. 2018. 12. 01)

소풍 갔을 때 아이들이 벌레는 있나 없나 찾고, 어린이집에서 못 봤던 벌레를 찾은 아이가 친구들, 형아들 다 불러서 같이 보고 진짜 계속 봤어요.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겁이 없는 아이들은 만져보기도 하고, 색깔도 보고, 어디 가는지 보면서 아이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모습 보면 진짜 귀여웠어요. 언젠는 무당벌레를 발견해서 “여기 뭐 있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다 모여서 “무당벌레다”, “아니야. 그냥 벌레다”, “만지면 몰까?” 하면서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더라고요. 맨날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모래놀이하면서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사용하다가 필요한 거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고 새로운 것 발견하면 같이 보고, 모래놀이 와서 또 놀이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정말 많아졌어요. 영아들인데도 이런 놀이 모습을 보이니까 ‘모래놀이 하니까 과학놀이를 저절로 하네... 모래놀이를 하길 잘 했구나’하고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시간이 되었어요.

(C교사 면담. 2018. 11. 17)

사례에서와 같이 교사들은 모래놀이가 지속되면서 놀이뿐만 아니라 놀이 공간도 확장되어 주변을 탐색하는 영아들의 모습이 매번 실외 모래놀이 때마다 관찰된다고 하였다. 즉, 처음에 단순히 모래만 사용하던 영아들이 자연

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연물을 찾다가 내 주변을 탐색하여 발견한 다양한 자연물을 탐구, 채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아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교사로서 큰 보람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아들의 놀이 변화가 관찰 과정에서도 목격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아 1 : 와~ 눈이다

영아 2 : 눈이다. 눈이 많다

영아 1 : (손으로 눈을 모은다)

영아 2 : (영아 1과 보고 똑같이 손으로 눈을 모은다)

영아 1 : 눈이랑 모래랑 섞인다

영아 2 : 나도 모래랑 섞는다

영아 1 : 내가 더 많으다(많다)

영아 2 : 나도 많이 할 거다

영아 1 : 나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내가 많이 섞었다

영아 2 : 나뭇잎도 섞을까?

영아 1 : 그래. 나뭇잎도 섞으자(섞자)

영아 2 : 나뭇잎 더 가져오자

영아 1 : 그래, 나뭇잎 더 가져와서 섞으자(섞자)

영아 2 : 저기 나뭇잎 많다. 가져오자

영아 1 : (영아 2와 나뭇잎을 두 손 가득 가져와서 눈과 모래와 함께 섞는다)

영아 2 : 이제 뭐 섞을까?

영아 1 : 음.... 뭐 섞을까?

영아 2 : 어? 저기 뭐 있나 가 보자

영아 1 : 그래, 뭐 있나 가 보자

(만 2세 영아관찰, 2019. 02. 13)

관찰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아들은 단순히 모래에 떨어진 눈을 모래와 섞다가 나뭇잎, 나뭇가지 등의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물로 호기심이

확장되어갔다. 이러한 영아들의 경험은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할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주변에 대한 호기심으로 연계되어 주변을 둘러보고, 필요한 재료나 놀잇감을 직접 찾아보는 계기로 확대되어 나가는데, 교사들은 영아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다.

### 3) 영아의 성장에서 오는 뿌듯함

교사들은 영아들이 적극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여러 부분에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뿌듯함도 느낀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처음 모래를 만졌을 때 낯설음으로 인해 거부반응을 보였다가 점차 옷이나 발, 신발에 모래가 묻어도 교사의 눈치를 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바지나 손에 모래가 묻어도 개의치 않고 놀이를 계속한다고 하였다.

영아 : (울먹이며 교사에게 손을 내민다)

교사 : 손에 모래 묻었어?

영아 :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 : 손 씻고 싶어?

영아 : 응

교사 : 그래. 손 씻고 놀자

(만 1세 영아관찰, 2018. 10. 22)

영아 1 : 와~

영아 2 : (영아 1 옆에 앉는다)

영아 1 : (손으로 모래를 뿌리며) 와~

영아 2 : (영아 1과 똑같이 손으로 모래를 뿌린다)

영아 1 : 비 온다. 비

영아 2 : 비다. 비

영아 3 : 뭐해? 비와?  
 교사 : 진짜 비가 오네. 모래비가 내리네  
 영아 1 : 응. 비와. (모래 뿌리며) 비 온다  
 영아 3 : (바지를 가리키며) 코끼리 없어졌다  
 영아 1 : (자신의 바지를 보며) 나는 토끼! (모래 뿌리며) 토끼 없어진다  
 교사 : 이제 모래도 만지고, 비도 내리고 재미있게 놀이하네. 이제 모래 만져도  
 괜찮아?  
 영아 1 : 응  
 영아 2 : 이제 만져도 괜찮아요  
 교사 : 우와~ 대단한데! 정말 많이 컸네. 이제 모래놀이도 하고...  
 영아 2 : 이제 모래놀이 재미있어요  
 영아 3 : (웃으며 모래를 뿌리며) 비 온다

(만 1세 영아관찰, 2018. 11. 20)

관찰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에 대한 낯설음이 줄고, 놀이터에 도착하면 주저 없이 모래 바닥에 앉아서 모래를 만지며 놀이하며 변화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실외 모래놀이를 하면서 영아들은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영아가 성장한 모습이 관찰되었고, 교사도 영아가 모래에 재미를 갖고 놀이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였다.

모래에 관심을 보이고 더럽다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모래놀이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혼자 놀이하는 시기인데 모래놀이는 같이 놀이하는 모습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다른 놀이와 다르게 교사가 놀이를 알려주고, 소개 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어쩔 때는 영아들이 먼저 놀이를 하고 있으면 유아들이 재미있어 보이니까 다가와서 놀이에 끼기도 하고 영아들이 만든 케이크 가지고 생일놀이하고, 소꿉놀이 한다니까요.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기특해요.

(G교사 면담, 2018. 12. 15)

위의 면담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모래를 낫설어하던 영아들이 점차 모래놀이에 흥미를 보이고, 영아시기임에도 또래놀이를 하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모래놀이 과정에서 영아가 스스로 놀이에 참여하기도 하며, 좀 더 성장한 놀이변화가 눈에 띄게 관찰되어 교사로서 매우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모래놀이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영아들은 자연물을 모래와 함께 활용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놀이까지 창조 해 내서 영유아들이 함께 놀이하는 놀이창조자라는 놀라운 모습도 관찰된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관찰 과정에서도 목격되었다.

영아 1 : 나뭇가지다

영아 2 : 나도 찾았다

영아 1 : 내 것이 더 큰데...

영아 2 : 나도 큰데?

영아 3 : 우리 여기에다 모으자

영아 1 : 그래. 여기에다 모으자

영아 2 : 또 갖고 올까?

영아 1 : 그래

영아 3 : 나 나뭇가지 또 찾았어

영아 2 : 나도 나도. 내 거 검정색이야

영아 3 : 여기에다 모으자. 어? 니 꺼랑 내 꺼랑 색깔 똑같다

영아 2 : 진짜. 색깔 똑같다

영아 1 : (나뭇가지 가지고 와서) 나는 이 거 찾았어

영아 2 :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영아 3 : 우리 또 찾아보자

영아 2 : 그래. 여기에다 많이 모으자

영아 1 : (나뭇가지 가지고 와서) 진짜 많다. 그지?

영아 2 : 진짜 많다. 긴 거 모으니까 산이다 산

영아 1 : 산? 진짜 산이다 산. 나 산에 가 본적 있어

영아 2 : 나도 산에 가 봤어. 엄청 힘들어

영아 1 : 우리 또 갖고 올까?

영아 2 : 그래. 우리 많이 많이 모으자. 긴 거 가지고 오자

(만 2세 영아관찰, 2019. 01. 07)

모래놀이를 매일 하면서 처음에는 모래만 만지다가, 다음에는 도구를 사용해서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물을 함께 가지고 놀이하고 점점 놀이가 커지고 다양한 놀이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매일 놀라기만 하고 있어요. 아직 수 세기도 관심이 없거나 조금씩 해보려는 영아들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찾은 자연물 색깔을 이야기하고, 누가 더 큰지 길이를 비교를 하고 정말 매일 놀라기만 하고 있어요. 유아반 선생님들도 놀란다니까요. 모래놀이가 좋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 모래 묻었다고 울고 안기고 그래서 괜히 했나하고 후회도 했는데 시기가 지나니까 이렇게 잘 노는 것을 보면 이제는 모래놀이하면 전 신난다, 재미있다 생각이 들어요.

(C교사 면담, 2019. 01. 07)

위 관찰 및 면담사례와 같이 영아들은 모래 위에 나뭇가지를 모으면서 색깔을 비교하기도 하고 높이 쌓기 위해 긴 것만 찾아오자고 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모래와 자연물을 활용한 수학적 활동으로도 진행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산 만들기라는 새로운 놀이를 만든 영아들의 모습을 보고 교사로서 매우 놀라움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영아 : 모래가 이상해

교사 : 어제 비가 와서 모래와 물이 섞였어

영아 : 모래와 물이 섞였어요?

교사 : 응. 한번 만져봐 봐

영아 : (손가락으로 찢러본다)

교사 : 만져보니까 어때?

영아 : 엄청 시원해요

교사 : 모래랑 물이 섞이니까 엄청 시원하구나

영아 : 점토 같아요

교사 : 만져보니까 점토 같아?

영아 : 이 것 봐요. (손으로 모래를 뜨며) 엄청 잘 떠져요. 이거 계속 만져도 돼요?

교사 : 그럼, 계속 만지면서 놀아도 되지.

(만 2세 영아관찰, 2018. 10. 30)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아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모래가 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비가 와서 물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눈이 온 다음 날에는 눈과 모래를 섞어보고 “눈에 모래 묻어서 검정색 눈이 되었어요”라며 언어표현력에서도 변화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비와 눈으로 인해 촉감, 질감이 달라진 모래에 대한 다양한 언어표현 모습도 관찰되었고, 영아의 언어적 표현능력이 성장함을 경험하며 교사들은 모래놀이의 대단함을 함께 느낀다고 하였다.

모래만 가지고 놀다가 비나 눈이 온 다음 날 모래와 비, 눈이 섞이면 진짜 좋아해요. 옷에 물감 묻는 것을 싫어하던 영아들도 물모래를 하고 나면 조금씩 손에 묻는 것을 싫어하던 모습도 줄어드는 것 같고요. 한 번 물모래 놀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래에다 뭔가 섞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섞고, 나뭇잎도 섞고, 꽃도 넣고... 모래놀이하면서 자연물이랑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날씨도 이야기하고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모래놀이를 관찰하거나 함께 놀이하면 저도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영아들이 커 가는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A교사 면담, 2018. 11. 03)

교사들은 영아들이 모래놀이를 하면서 자연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언어표현 및 또래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영아들이 스스로 자연물 탐색하고 날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체의 변화과정을 경험하고 자기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등의 성장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교사들은 모래와 자연물을 함께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영아의 놀이모습이 계속 관찰될 때, 언어표현력의 다양함이 발견되었을 때, 또래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활성화된 놀이 모습을 보일 때 등 영아들의 변화와 성장과정이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발견되는 모래놀이를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들은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 2.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부정적 경험

영아반 실외 모래놀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부정적인 경험은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변화되는 양가감정, 활동 마무리와 청결에 대한 부담감, 활동 중 역할 수행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모래놀이 진행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과 부정의 양가감정

영아반 교사들은 실외에서 영아들이 스스로 모래놀이를 선택하고 즐겁게 놀이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들의 모래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뿌듯함과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놀이터 가자고 하면 바로 정리하고 신발 신고 나가고, 진짜 빨라요. 언젠는 나뭇잎도 넣고, 소나무 잎도 꽃아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파는 놀이를 하는데 놀랐어요. “아이스크림 사세요”하는데 아이들이 가게놀이를 스스로 진행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럴 때 교사로서 뿌듯함도 느끼고, 아이들도 많이 컸구나 생각도 들어요.

(B교사 면담. 2018. 11. 10)

그러나 모래놀이가 점점 진행되면서 부담감과 걱정, 불안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커지는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즉, 교사들은 모래놀이가 가진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다양한 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영아들에게 모래놀이 경험을 제공하지만 놀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리정돈, 안전과 청결에 대한 염려 등으로 긴장감과 불안감이 엄습해온다고 하였다.

저는 모래놀이가 영아들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영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실외활동을 나가면 모래놀이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영아들이 손으로 모래를 떠서 그릇에 담기도 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놀이하러 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예쁘고, 많이 성장했구나...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하지만 점차 옷에 묻어 있는 모래, 머리카락, 영아들의 손과 발의 모습이 더 부각되면서 저걸 어떻게 치우냐...하고 걱정이 되면서 즐거웠던 마음에 뒷정리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더라고요.

(G교사 면담. 2018. 12. 15)

영아들이 모래놀이를 정말 좋아해서 놀이터에 나가면 바로 삽이랑 그릇을 들고 모래놀이터로 가서 바닥에 앉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 진짜 재미있게 놀이하는데 영아들이 교실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놀이하니까 교사로서 뭔가 뿌듯함, 보람도 느끼고 좋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도 많아지면서 집중이 안 되고, 행어나 눈이나 입에 모래가 들어 갈까봐 걱정되고 ‘활동을 정리해야하나’ 조바심이 나요.

(D교사 면담. 2018. 11. 24)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영아들이 실내놀이와 다르게 매우 적극적으로 놀이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 뿌듯함과 보람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래 놀이 활동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안전하게 놀이해야 된다는 부담감, 뒷정리로 인한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 청결에 대한 걱정으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서 모래놀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지도하기보다는 활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의도적으로 실외놀이기구를 이용한 놀이로 영아들을 유도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하였다.

바닥에 앉아서 모래 놀이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걱정이 되요. 특히 만 1세요. 입으로 넣을까 봐 걱정되고, 바지나 신발에 모래가 계속 쌓이는 것을 보면 옷 갈아입힐 것도 걱정되고요. 언제는 웅가해서 기저귀를 벗기는데 기저귀 안에 모래가 있는 거예요. 기저귀 안까지 모래가 들어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 뒤로 만 1세는 모래 놀이 하다가 옷이 점점 더러워지는 것 같을 때 미끄럼틀 타자고 하거나 다른 놀이 하라고 하라고 했었어요.

(E교사 면담. 2018. 12. 01)

모래놀이를 할 때 항상 눈에 들어갈까 봐, 입에 넣을까 봐, 머리에 들어갈까 봐 걱정이예요. 특히 손가락 가지고 모래놀이 할 때 진짜 먹을까봐 계속 지켜보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래놀이가 영아들에게도 정말 좋다는 건 알지만 영아들은 진짜 입에 넣잖아요. 먹을까 봐 자꾸 안 된다고만 하고 영아들은 친구에게 뿌리는 경우가 다수예요. 주의할 점이 많아 분주하고 안전하게 놀이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때문인 것 같아요.

(A교사 면담. 2018. 11. 03)

이러한 교사의 불안감은 영아의 사소한 행동에도 주의를 주거나 정리정돈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잇감을 자꾸 정리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영아들이 모래놀이 할 때, 친구에게 모래를 뿌리는 경우가 많아 본인을 비롯한 다른 영아의 눈이나 몸에 모래가 들어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다고 하였다. 모래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다보니 충분한 놀이시간을 제공하기에도 힘들고, 주의할 점이 많아서 처음에는 여유

롭고 즐거우나 먹거나 뿌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힘듦, 조바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모래놀이를 진행할 때마다 가지며 교사들에게는 어려운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활동 마무리에 대한 부담감

영아반 대상 실외모래 놀이를 지도하면서 교사들은 청결과 정리정돈의 부담감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놀잇감 정리, 활동 마무리, 옷 털어주기 등 모래가 여러 곳에 묻을 수 있지만 이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기에 정리할 때 세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마무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으나, 이 모든 일은 교사 혼자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옷을 정리할 수 없어서 교사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한다. 특히, 모래와 같은 작은 알갱이는 영아의 머리와 옷 속, 신발과 양말 속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털어내는 일은 모두 교사의 몫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더구나 모래놀이는 실외놀이가 있는 오전 일과 중에 주로 진행되는데 하원 때까지 영아들의 옷, 머리에서 모래가 계속 나오기도 하여 청결에 대한 부담감으로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놀이 후에 영아들과 활동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일과 진행 시간이 지연되고 이러한 과정이 매일 반복되다보니 모래놀이가 영아들에게는 즐거움이 크겠지만 교사에게는 부담감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모래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아서 진짜 적극적이고 와일드하게 놀이해요. 처음에는 옷에 묻는 것을 영아들도 꺼리지만 놀이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가 높

아지면서 영아들은 거리낌 없이 모래놀이에 폭 빠지죠. 하지만 저는 손과 옷, 바지 뿐만 아니라 교실에 들어가면 머리카락에서도 모래가 계속 나오고, 옷 안, 기저귀 안에서도 모래가 나오니까 정리에 끝이 없어요. 영아들 옷도 털어주고, 머리도 털어 주고 나면 교실 바닥도 또 청소해야 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모래놀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B교사 면담. 2018. 11. 10)

실외활동 후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모래를 다 털어주고, 뒷정리까지 하고 하면 시간이 다 지나가있어요. 교사가 2명이어도 영아들은 14명이다보니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요즘 모래놀이터가 주변에 없다보니 어린이집에 오면 모래라는 새로운 것에 영아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앉아서 놀이하게 되니까 모래가 호주머니나 소매, 신발 등등 정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일일이 그 걸 다 털어주고 접힌 소매를 펴서 털고 다시 접어주어야 하고, 영아들이 기다리지도 못하고, 혼자 털지도 못하고, 7-8명 하다보면 영아들도 기다리느라 힘들고, 터는 동안 가만히 있지 못해서 저도 힘들고 활동을 즐겁게 하고 나서 정리 시간에 영아들도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H교사 면담. 2019. 01. 19)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모래놀이 후 영아들을 1명씩 머리부터 신발 안쪽까지 모두 깔끔하게 털어주고 정리 해 주어야 하는 시간이 놀이시간만큼 길다고 하였다. 아직 혼자 모래를 털고 정리하기에 어린 영아들이고, 교사가 1명씩 모래를 털어주는 동안 대부분의 영아들은 기다리기 힘들어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앉아서 기다려 달라고 해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어서서 다시 놀이터로 가요”, “아직 모래를 털지도 않았는데 영아들은 교실에서 놀려고 그냥 들어가요”라며 기다리기 힘든 영아들을 바라볼 때면 활동 진행에 대한 후회, 정리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크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특히 영아들이 소수인원만 모래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아들이 활동하다 보니 모두 옷과 머리를 정리해주어야 해서 많은 인원수로 인해

영아들뿐만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모래놀이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하원할 때 머리카락 안에 모래가 남아있으면 부모님과 만날 때 걱정이 되었어요. ‘모래를 안 털어줬나’, ‘우리 애를 안 챙겨줬나’라고 생각을 할 까 봐요. 부모님들이 “모래놀이 신나게 했네?”라던지, “선생님, 우리 아이 머리에서 모래가 나왔어요. 다음에는 한 번씩 털어주세요”라고 수첩을 써 오면 그 당일에는 진짜 계속 모래가 있나, 없나를 보게 돼요. 사실 머리를 감아야 완벽하게 없어 질 텐데 어린이집에서 머리를 감겨주고, 목욕 시켜 줄 수 없으니까요. 학부모들 표정이나 수첩 내용 때문에 걱정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영아들은 모래놀이를 조금만 하게 한다거나, 계속 주의를 주게 돼요.

(E교사 면담. 2019. 01. 12)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옷과 머리의 모래를 다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 할 경우 하원 때 부모님께 인계할 때 위생과 청결에 대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올 까 걱정이 된다고도 하였다.

### 3) 모래의 청결에 대한 염려

모래놀이터가 대부분 실외에 위치 해 있다 보니 교사들은 모래의 위생과 청결부분에서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영아들의 발달특성 상 입에 들어갈 확률이 높는데 입에 들어 간 모래가 실외에 계속 제시 되어 있던 터라 위생적으로 깨끗한지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다고 하였다. 또한 놀이 중 영아들이 모래를 뿌리고 먹는 행동으로 인해 영아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도 되어 모래놀이에 대한 어려움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다.

영아들이 놀이하다가 재미있고, 기분이 상승되면 모래를 던지고 놀아요. 그러면

옆이나 앞에 있는 친구 머리나 눈이 들어가서 울고, 또 손가락으로 모래를 떠서 먹  
는 흉내만 내야 하는데 아직 어려서 입에 진짜로 넣어서 안전하고 발생하고 그래서  
활동을 중단시키고... 모래놀이는 다른 활동에 비해 충분한 놀이시간을 주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F교사 면담. 2018. 12. 08)

모래가 계속 밖에 있는데 길고양이나 개가 똥을 싸잖아요. 오전에 와서 발견하면  
치우지만 그래도 모래는 장난감처럼 물로 씻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영아들  
은 그 모래 위에 앉아서 놀이하거나 입이나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옷에도 다 묻는  
데 청결부분에서 정말 더럽다고 느껴져요. 전염병이 유발될 것 같고, 모래를 보면  
안전한가? 깨끗한가? 라고 생각만 되요. 그래서 영아들이 모래놀이를 너무 좋아하  
는데 매일은 지도하기가 좀 그래요.

(C교사 면담. 2019. 01. 26)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은 실외에 제시되어 있는 모래가 매일 소독을 하  
여 깨끗하게 관리하기도 어렵고, 연령이 어린 영아의 발달특성 상 특히 입  
에 많이 들어가는 데 위생과 청결 부분에서 걱정이 되어 모래 놀이 지도과  
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교사들이 모래 자체에 대한 위생부분에서 걱정이지만 모래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놀잇감과 같이 정기적  
인 세척이나 소독을 하지 못 하기에 청결한 모래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서 놀이가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더러운 모래에서 놀이를 지도  
하는 것 같음 마음이 어려움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청결에 대한 염려로  
인한 교사의 어려움은 모래 놀이 과정에서 실제의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  
였다.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왔는데 아이들이 똥 냄새가 난다고 한 적 있어요. 진짜 파  
리도 많고, 냄새나는 곳을 찾아보니 개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만지지 않

아서 다행이지... 학기 초였으면 만졌을 것 같고... 개똥을 발견해서 치우긴 했는데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아이들은 똥 얘기만 하고.. 똥 묻은 모래까지 다 버려버렸는데도 걱정되더라고요. 만약에 오래 되서 발견하지 못 하면 아이들이 놀이하다 만질 수도 있으니까요.

(A교사 면담. 2018. 11. 03)

저는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이 데리고 나갔는데 모래에서 담배꽂초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만졌으면 정말 큰일 났겠죠. 저희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밖에 나와서 담배피고 그냥 버리고 가는 지 모래에서 나왔어요. 아파트 놀이터는 경비아저씨들이 청소하시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1번만 나오고, 그 뒤로는 모래에 쓰레기 없나 확인하고 놀이하고 있어요.

(C교사 면담. 2018. 11. 17)

위의 사례와 같이 몇몇의 교사들은 모래 청결에 대한 염려가 걱정과 우려만이 아니었고, 실제로 비위생적인 모래를 만난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실외 모래를 매일 걱정을 하다가 실제상황으로 발생하자 교사들은 모래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하게 다가왔다고 하였다. 기관에 모래놀이터가 있다면 업체를 통해 모래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에서 실외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모래 청소가 이루어지는 지 알 수 없기에 모래에 대한 위생과 청결 부분에서 의심과 걱정이 항상 된다고 하였다.

모래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업체를 불러서 청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지 않아요. 교실은 매일 청소하고 장난감도 닦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지만 실외놀이터는 사실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고 쓰레기 정리나 간단히 정리정돈만 할 뿐이지 청소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아들이 모래놀이하다 머리에 들어가거나 뿌리고 그러면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D교사 면담. 2018. 11. 24)

저희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서 실외활동을 진행하는 데 모래를 정기적으로 청소할까 싶어요. 그리고 고양이나 개가 똥 쌀 수도 있고요. 개똥을 발견했던 적도 있어요. 모래를 정기적으로 세척이나 청소하는 모습을 봐야 저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한테도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할텐데 진짜 걱정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영아들은 학기 초에 입에 들어갈 때가 많은 데 장염 걸리지 않을까 하고 전염병 걸리까봐 걱정만 되요. 모래도 누가 청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입에 들어가도 덜 걱정 하겠어요.

(C교사 면담. 2018. 11. 17)

모래놀이하면 옷이나 손, 얼굴에 안 묻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모래를 만져도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소꿉놀이는 입에 넣어도 사실 자주 닦아주니까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입에 넣으면 바로 세척바구니에 넣었다가 그 날 물로 닦으니깐요. 그런데 모래는 입에 들어가면 털어내도 걱정이예요. 삼키면 괜찮을까...하고요. 영아들도 모래놀이를 편하게 하고 저도 걱정하지 않게 먹어도 되는 안전한 모래가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B교사 면담. 2019. 01. 05)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 시 느끼는 어려움과 같이 교사들은 실외 모래놀이가 깨끗하게 관리, 유지된다면 좋겠다는 요구가 모두에게 있었다. 실내 놀잇감 관리와 달리 실외 모래를 매일 관리하지도 않고, 관리하려면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래의 청결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모래놀이를 꺼리는 이유가 눈이나 입에 들어가고 모래를 뿌리기 때문이긴 한데 그 전에 그 모래가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걱정하는 거예요. 어찌다 쓰레기를 발견하고 나면 모래를 다 뒤집어서 청소할 수도 없고, 아이들한테 모래놀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수족구나 병 걸릴까 봐 걱정만 되요.

(G교사 면담. 2018. 12. 15)

이로 인해 위의 사례와 같이 실외에 있는 모래가 교사 입장에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에 모래의 안전성이 확보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자유롭게 놀이하고 몸에 묻거나 입에 들어가도 걱정이 되지 않는 모래가 개발되거나, 정기적이고 지속적, 전문적 관리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 4) 역할 수행에 대한 강박

교사들은 모래놀이를 지도하면서 다른 놀이들과 달리 무의식적으로 놀이에 자꾸 개입하거나 주도하고, 놀이를 중단하는 등의 모습에서 역할 갈등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영아들의 놀이도 영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교사가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놀이에 참여하거나 중재하는 등의 교사 역할을 보여야 하는 데, 모래놀이에서만은 교사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놀이에 개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모래놀이를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진짜 많아요. 모래를 안 던지는 날도 없고, 서로 손가락을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놀이하면서 원하는 그릇이나 채반을 독차지 하고... 정말 다툼도 많아요. 그러다보니 실외놀이를 나가서 영아들의 놀이 모습을 관찰하다가도 모래놀이 쪽으로 점점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놀이보다는 모래놀이 하는 영아들이 싸우지 않는 지, 모래를 뿌리지 않는지 계속 지켜보고 던질까봐 개입하고, 손가락가지고 싸울까봐 개입하고 사전에 제가 놀이를 중단시키고 개입하게 되더라고요.

(C교사 면담, 2018. 11. 17)

아직 영아라서 놀이하면서 재미로 모래를 던지고 뿌리면서 놀이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괜찮은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얼굴에 뿌려지고, 머리에 다 묻고, 눈에 들어가서 울고 그러다보니 모래놀이를 못 하게 막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2명만 놀이할 수 있게 유도하고, 막상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도 제가 하지마

라. 이렇게 해라. 안 된다. 놀이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못 하게 하는 말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다 싶어서 일어서도 다시 모래놀이 하는 영아들만 보게 되고, 나중에는 영아들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E교사 면담, 2018. 12. 08)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들은 영아들이 모래놀이를 할 때 친구에게 모래를 뿌리거나 놀이도구로 인한 갈등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생각에서 자주 놀이에 개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모래 놀이 과정에서 영아들이 모래를 뿌리거나 친구에게 던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으로 자신도 모르게 자꾸 모래 놀이영역 쪽으로 다가가서 있거나 놀이에 개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모습은 모래놀이 관찰 과정에서도 목격되었다.

(모래놀이 중)

영아 1 : 이게 뭐야

영아 2 : 내가 모래 가지고 온 거야

영아 1 : 이거 내거잖아.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영아 2 : 나도 같이 하자.

영아 1 : 싫어. 내가 먼저 했잖아.

(소리 듣고 교사 다가가고 있음)

영아 2 : 내가 많이 준건데?

영아 1 : 싫어. 내 거야. 너는 다른 거 해.

영아 2 : 알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영아관찰 문서자료, 2018. 11. 12)

영아 1 : (영아 2 옆에 있던 숟가락을 잡는다)

영아 2 : (숟가락을 같이 잡으며) 내거야.

(소리 듣고 교사 다가간다)

영아 2 : 선생님. 숟가락 뺏어갔어요. 내가 먼저 찾은 건데...

영아 1 : 알았어. 돌려줄게  
 영아 2 : (손가락 받는다)  
 영아 1 : 다 하고 빌려줘.  
 영아 2 : 알았어. 10번하고 빌려줄게.  
 영아 1 : 10번하고 빌려줘야 돼.  
 영아 2 : 알았어. 기다려.

(영아관찰 문서자료, 2019. 02. 11)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는 모래놀이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까 봐 자신도 모르게 모래놀이 상황으로 자꾸 다가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고 하였다. 즉, 교사들은 영아들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기다려줘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모래 놀이 상황에서는 기다림보다는 상황 발생에 대한 염려가 더 크게 작용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모래 놀이 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깨달음은 바람직한 교사 역할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져 심리적 어려움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생태교육이나 특별활동처럼 교육계획안이 있으면 모래놀이를 좀 더 충분한 놀이 시간을 제공하고 지도 해 볼 수 있겠다고 하였다. 특히 생활주제와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연간으로 계획되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좀 더 모래놀이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하였다.

단순히 모래만 가지고 놀이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고하고 사용할 것 같아요. 주간교육계획안에도 모래놀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좀 더 다양하게 모래놀이를 할 것 같아요. 모래놀이는 활동계획안이 사실 없고, 실외활동 때 도구를 가지고 놀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생활주제에 맞춰서 연간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책이나 지침서로 나온다면 꼭 해 볼 것 같아요.

(H교사 면담, 2018. 12. 22)

모래놀이는 가서 그릇이랑 손가락 가지고 놀이하거나 모래 위에 모양들을 찍어

보거나 모래 속에 숨은 동물 찾거나 활동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래놀이 도구 가지고 놀이하고 자연물 가져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요. 저는 다양한 색깔의 모래가 있었으면 좋겠고, 모래를 활용한 놀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F교사 면담. 2018. 12. 08)

교사들은 표준보육과정은 지침서가 있기에 참고하고 초임 때부터 어려움 없이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기에 좋다고 하였다. 영아 대상 모래놀이도 생태교육과 같이 특별 프로그램들도 생활주제와 연관되어 연간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었기에 활동 계획 및 진행 시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면담한 교사들 모두 꼭 사용해볼 거라고 하였고, 모래놀이에 대해 교사로서도 좀 더 흥미를 갖고 주간교육계획안에 작성하고 활동을 진행 해 볼 것 같다고 하였다.

아이들과 모래놀이를 할 때도 있고,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기도 하는데 가만히 관찰자로서 있다 보면 주위에서 볼 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교사로 보일까봐 걱정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 놀고 있으니까 굳이 교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뒤에서 관찰하는데 이래도 될까 싶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말도 없이 쉬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사실 걱정이 되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연간으로 제시된다면 주제별로 활동도 진행하고 자유놀이도 진행하면 주위에서 보는 내 모습을 덜 신경 쓸 것 같아요.

(A교사 면담. 2018. 11. 03)

모래놀이가 오감발달에도 좋고, 형체가 없어서 창의적이고, 탐구력도 생기고 소근육 발달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교육적 가치가 많은 모래놀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실내대체 활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점점 실외활동을 못 하는데 모래놀이도 못 하게 되잖아요. 모래놀이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나온다면 꼭 사용할 것 같아요.

(E교사 면담. 2018. 12. 01)

모래놀이는 교사 개입이 많지 않고 아이들끼리 주로 놀이하는데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이들의 놀이를 확장시켜주거나,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연물을 찾아오고, 이야기 나누면서 다양한 놀이를 하지만 교사는 안전에 대한 말만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절한 교사 상호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B교사 면담. 2018. 11. 10)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활동을 하지 못 할 경우 실내에서 대체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유희실 활동이나 도구 활동과 더불어 실내 모래놀이 진행하는데 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모래놀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단순히 실외활동 중 하나의 활동으로만 인식되고, 영아들이 필요로 하는 놀이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교사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관찰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이 느껴져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모래놀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경험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긍정적 경험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긍정적 경험은 즐거움의 공유, 영아의 호기심 확대에서 오는 기쁨, 영아의 성장에서 오는 뿌듯함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영아들과 정서적으로 즐거움을 공유하는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실내놀이와 달리 실외 모래놀이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주도하며 적극적인 놀이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놀이에 재미에 느끼고 웃으며 놀이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보면 교사도 즐거움과 재미라는 감정을 영아들과 공유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모래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구성하기 시작한다는 손현미(2012)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 참여 교사들도 영아들이 도구와 모래를 활용한 놀이를 반복하면서 다양한 놀이 모습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기본생활습관이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형성되고 다양한 역할 및 상상놀이가 이루어지면서 영아들의 기분도 긍정적으로 상승되고 이와 더불어 교사들도 ‘좋다’, ‘재미있다’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고 하였다.

교사들은 영아들이 모래놀이에 몰입하여 놀이를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영아들의 유쾌한 모습은 교사들에게도 전이되어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띠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긍정적인 감정은 정리정돈의 부담과 청결 문제로 모래놀이를 꺼리던 교사들조차 모래놀이를 좋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모래놀이를 하면서 영아들이 실내놀이와 다르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놀이하고, 특히 놀이가 진행되면서 진정한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활용방법이 자유로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모래의 특성(김정미, 2004)이 영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래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영아들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면서 교사들은 영아들과 함께 재미와 즐거움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모래놀이가 무의하게 반복적이며 위생적이지 못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모래놀이 진행되면서 영아들의 몰입도가 높고, 오감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흥미로운 곳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왔다는 최진영(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실외 모래놀이를 통해 영아들이 먼저 놀이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면 놀이를 관찰하거나 영아들과 함께 놀이한 교사들도 영아와 같은 감정인 즐거움을 느끼고 그 즐거움을 정서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아들의 호기심이 점점 확장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놀이하는 영아들을 볼 때 기쁨이라는 긍정적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모래놀이 초기 모래에 대한 낯설음과 당혹감을 표출하였지만 모래놀이의 반복적인 진행을 통해 모래에 대한 친숙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주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나갔다. 이

는 생동감과 활력이 있는 자연물이 모래와 만나 역동적인 모래놀이도 변화하고 유아들이 놀이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권기현(2013)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결과이다. 또한 모래를 움켜쥐거나 뿌리면서 노는 단순 놀이에서 도구를 활용한 모래놀이로 변화되고, 호기심이 확장되어 주변 환경으로 시야가 넓어져 자연물과 혼합하는 모래놀이로 변화되는 영아의 모습이 관찰되면서 교사들은 모래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탐색으로 모래놀이에 대한 영아들의 흥미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교사로서 보람을 가진다고 하였다. 동네산책이나 현장학습을 가셔도 주변을 둘러보고 새롭게 발견한 벌레, 나무 열매를 함께 탐색 및 관찰하는 시간 많아졌다는 것은 면담 교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실외 모래놀이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영아들의 호기심이 점점 주변으로 확장됨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놀이의 재미를 느끼며, 모래놀이에 필요한 재료나 놀잇감을 직접 찾음으로써 느끼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가지는 영아의 모습에서 교사들은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과 직접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홍은주(2003)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결과로 영아 실외 모래놀이의 지속적인 실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실외 모래놀이를 통해서 교사들은 영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아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교사로서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가정에서 모래를 만져 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처음 모래놀이를 시작할 때 손이나 옷에 모래가 묻으면 당황해하고, 울먹이며 옷에 닦거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주변 환경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영아기이기 때문에 낯설음으로 인해 모래라는 재료와

의 첫 만남에서 당혹감, 거부감이 먼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영아들은 자신의 흥미와 재미를 지속시키기 위해 동일한 결과를 얻는 단순한 놀이 활동을 반복한다고 제시한 신유림 외(2007)의 내용처럼 영아들은 당혹감으로 다가왔던 모래라는 재료에 재미를 느끼게 되어 점차 자유롭게 놀이를 주도하며 적극적인 놀이자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에 교사들은 영아들이 성장했음을 느끼고, 대견함과 뿌듯함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영아들은 모래놀이에 흥미를 보이면서 점차 친구와 함께 또래놀이를 하게 되고 모래놀이 경험이 늘어나면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놀이하고 새로운 놀이를 창조하는 모습도 관찰되어 교사로서 영아들의 큰 변화에 놀라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연물은 모래놀이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자연물과 모래를 함께 활용하면서 놀이를 창조적,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이 더 향상된다는 김은혜(2009), 박미주(2009)의 연구결과와 같다고 사료 된다.

또한 영아들은 실외 모래놀이를 통해 날씨 변화에 따라 모래가 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비와 눈으로 인해 촉감, 질감이 달라진 모래에 대한 다양한 언어표현 모습도 관찰되었으며 영아의 언어적 표현 능력이 성장함을 경험하며 교사들은 모래놀이의 대단함을 함께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영아의 변화와 성장 과정이 지속적으로 발견될 때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모래놀이를 하면서 또래 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최진영(2016)과 실외 모래놀이 활동을 통해 우호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이명희(2017)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영아 실외 모래놀이가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아들의 실외 모래놀이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부정적 경험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부정적 경험은 지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과 부정의 양가감정, 활동 마무리에 대한 부담감, 청결에 대한 염려,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를 대상으로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긍정과 부정의 양가감정을 갖는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영아들과 실외 모래놀이를 하면서 자유로운 탐색, 스트레스 해소, 창의적인 표현, 또래 관계 형성 등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아기에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 인해 실외 모래놀이를 시작하고 지도, 관찰하면서 영아들이 재미있게 놀이하고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교사로서 느끼는 뿌듯함, 보람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하지만 놀이를 진행하는 동안 옷이나 머리카락에 묻은 모래를 보면서 청결에 대한 부담감, 안전에 대한 염려 등으로 감정의 변화가 시작한다고 하였다. 즉, 교사들은 모래놀이의 즐거움과 안전에 대한 염려의 감정의 변화가 모래놀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 교차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영아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환경을 탐색을 위해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심현정, 2002). 그러나 본 연구 참여 교사들은 모래놀이 시간에 영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시작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과 염려라는 부정적인 감정에만 치중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놀란다고 하였다. 즉, 교사로 느끼는 뿌듯함이나 보람보다는 걱정, 우려, 주의산만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화되면서 실외 모래놀이에 대한 필요성이 ‘꼭 해야 하나.’라는 인식으로 변화되

거나 영아의 활동을 제한시키는데 역할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실내놀이와 다르게 매우 적극적인 놀이 모습, 새로운 것에 대한 영아들의 즐거움이 주로 관찰되는 실외 모래놀이가 영아기 시기에 꼭 필요한 놀이라고 생각되지만, 안전하고 깨끗하게 놀이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영아반 담당 모든 교사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영아 발달 특성상 주변 환경, 사회를 알아가기 위해 쉬지 않고 탐색하고 호기심을 해결하는 영아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안전하게 놀이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실외 모래놀이에서의 어려움으로 더 크게 인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영아 대상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처음 느꼈던 교사로서의 뿌듯함과 보람을 놀이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교사들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영아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활동 마무리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영아반 교사들은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영아들과 정리를 할 때 모두 어려움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영아들은 아직 정리정돈이 어렵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래놀이과정에서 영아들은 모래에 주저앉아 맨손으로 만지고 뿌리는 등의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모래의 작은 알갱이들을 일일이 털어내는 일은 모래놀이 마무리 단계에서 꼭 해야 하지만 영아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아 1명씩 일일이 모래를 털어주고, 옷을 갈아 입혀주고 해야 하는 영아반 교사들은 교사 1명당 7명을 보육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리하는 동안의 영아들의 안전 관리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는 영아의 발달 특성상 일일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교사 업무적 특성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같은 열악한 보육환경이 영아반 교사의 역할 수행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는 조혜진(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영아들의 낮잠지도,

식사 등 자조 기술이 부족한 영아들을 개별적으로 돕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조미숙(2015)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결과이다.

교사들은 영아반 대상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정리정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까지 더해지면서 실외 모래놀이가 영아기 시기에 필요한 활동임에도 매일 지도하기 어렵고 기피하게 되는 놀이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영아 교사가 유아 교사들보다 정서적인 고갈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윤미정, 2011)에서 보듯이 영아반 실외 모래놀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비해 아동 비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서의석, 2006)는 연구결과와 같이 영아 교사들이 실외 모래놀이 과정에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영아의 비율 조정이나 보조 인력 투입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들은 영아를 대상으로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모래의 청결에 대한 염려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영아반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안전한 보살핌이다. 그러나 모래놀이는 교사가 관찰할 수도 없는 상황이나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실시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안전한 보살핌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불안감이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실외 모래놀이 과정에서 영아들은 친구에게 모래를 뿌리거나 입에 넣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주의할 점이 많다 보니 교사로서 두려움과 염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외 모래놀이 활동 후 옷이나 기저귀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털어도 계속 나오는 모래,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묻어 있는 모래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청결에 대한 큰 걱정과 염려가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하원지

도 때 학부모 응대 시 걱정과 두려움도 생긴다고 하였다. 영아 교사들은 영아들을 돌보면서 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여인우(2014)의 연구결과와 같이 안전사고가 아님에도 학부모들의 반응은 교사들에게 항상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는 영아와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면서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 영아의 부모와의 관계라는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상태에 이른다는 박상희, 문수경, 이무영(2006)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들과 교사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도록 청결한 모래 관리, 영아들에게 무해하고 안전한 모래 개발, 학부모들의 인식변화 등의 환경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사들은 영아를 대상으로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강박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실내놀이 때와 달리 실외 모래놀이를 지도하면 영아들의 놀이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모래놀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놀이하며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영아들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교사들은 관찰자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면서도 교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에 무의식적으로 놀이에 개입하거나 다른 놀이로 영아들을 전환 시킬 때가 있다고 하였다. 즉, 영아들 스스로가 잘 놀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놀이를 지켜보기 보다는 자신이 주도하여 어떤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교사 역할 수행에 대한 강박은 모래놀이가 실외의 열린 공간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될 때가 있다고 교사들은 이야기 하였다. 즉, 실외 모래놀이 지도 과정에서 교사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영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걱정으로 역할 수행에 대한 강박을 경험한다

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아들을 대상으로 실외 모래놀이가 필요하고,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놀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충분한 놀이시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영아들의 자유놀이에 불필요한 교사개입이 너무 많아진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실외 모래놀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을 찾고,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에 몰두하며 안정감을 증진하며 성취감을 만끽하여 긍정적인 정서발달에 도움을 받는다. 따라서 실외 모래놀이 경험이 영아기 시기에 필요한데 영아들이 필요치 않는 교사의 개입으로 원활한 놀이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놀이기회마저 박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영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외 모래놀이 활동에 교사의 개입이 유아의 사회성, 정서지능, 수학적성취 및 과학적 탐구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천은영(2004) 연구결과와 같이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교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 인지할 필요가 있고, 주변 시선의 인식변화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결론 및 제언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에서 느끼는 교사의 긍정적인 경험은 영아들이 모래놀이에 진정한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교사가 함께 정서적으로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공유하고, 실외 모래놀이가 진행되면서 영아들의 호기심이 확장되어 도구와 자연물을 활용하여 더욱 모래놀이 몰입하는 영아들의 모습이 관찰될 때 교사들은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들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다양한 놀이를 창조하고, 언어적 표현능력 향상을 보이는 등 영아들의 성장과 발달이 발견될 때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는 것이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에서 느끼는 교사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에서 느끼는 교사의 부정적인 경험은 영아들의 적극적인 놀이모습으로 인해 교사로서 함께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에서 점차 놀이정리, 위생과 청결,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화하는 긍정과 부정의 양가감정, 정리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래정리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느껴지는 활동 마무리에 대한 부담감,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청결관리로 인한 우려, 자유로운 놀이시간임에도 무의식적으로 개입하고 역할 수행에서 겪는 강박관념이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교사가 느끼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곳의 기관에서만 참여관찰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관 유형과 더 많은 수의 영아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관찰이 이루어진다면 만 1, 2세 영아들의 실외 모래놀이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 발견하여,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과정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경험을 탐색하면서 2학기를 대상으로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발달특성 상 영아는 1학기과 2학기의 발달차이가 크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에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한다며 영아의 발달에 따른 교사의 행동변화, 어려움이 관찰되어 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경희(2009).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영아반 실외환경. 육아지원연구, 4(2), 119-139.
- 강나리(2013). 실외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효진(2018). 실외놀이터와 실내놀이터에서 만 4세 유아의 놀이행동과 신체활동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침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2005). 한국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 곽희숙(2003). 정서·행동장애 특성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기현(2013). 실외모래놀이에서 자연물과의 만남이 유아에게 주는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1999). 실외 모래놀이 영역의 복잡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놀이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나영, 이경열, 정욱호, 홍계옥(2005). 영유아발달. 서울: 양서원.
- 김소영(2008). 만 5세 유아들 모래놀이의 집단 구성, 놀잇감 및 주제 선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2000).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실태에 관한 양적·질적 분석: 생태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정(2008). 모래놀이영역의 복잡성 수준에 따른 유아의 상상놀이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2000). 공격행동 감소 주장 훈련이 아동의 공격 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은선(2017). 미세먼지 환경에서의 영아반 실외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2009). 모래놀이가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2004). 모래상자놀이 활동에서 주제 제시가 유아의 창의성 계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근(2005). 영유아 발달 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정확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김언아, 홍희란(2004).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김희진, 임언아, 홍희란(2005). 영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매뉴얼. 창지사.
- 김희성(2015). 어린이집 만 2세 학급의 조작·탐색영역 활성화를 위한 실험연구의 의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경, 이윤경(2011). 모래놀이에서의 교사개입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6(2), 77-103.
- 도영숙(2007). 실내 모래놀이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숙란(2013). 가정어린이집의 실외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기화(2012). 문화센터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대상 강좌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나래(2016).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과 기대 및 보람에 관한 이야기.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주(2009). 모래놀이에서의 유아협동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희, 문수경, 이무영(2006). 보육교사의 소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1(6), 65-84.
- 박애자(1999).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물 · 모래놀이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3(2), 95-118.
- 박진옥(1986). 모래놀이, 물놀이가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옥(2000). 유아의 창의성과 물 · 모래 놀이행동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희(2015). 실내 모래놀이 활동이 만 2세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향아, 김민정, 안경매, 최선미(2015). 모래 놀이가 유아의 어휘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5), 95-110.
- 배미현, 이순복(2014).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교사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2), 339-360.
- 백해리, 노은호, 황성원, 조미환, 박종옥, 이순영, 곽혜경, 최효영(2006). 보육과정. 서울: 창지사.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 교사용 지침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봉선화, 김낙홍(2010). 만 1세 영아의 실외놀이 경험탐색. 아동보육연구, 6(2), 1-20.
- 봉진영(2005). 유치원 만 4세 유아의 모래놀이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화(2013). 영아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교사인식 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미, 이옥임, 박지선, 조재은(2010). 영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정민사.
- 서의석(2006).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실태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 김연진, 이경화, 윤혜경, 송주미, 장미경, 윤석희, 이배근, 최원기(1999). 영유아 발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소경란(2002).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명숙(2009). 영아반 실외놀이의 운영 실태 및 교사의 인식.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현미(2012). 만 2세 영아의 모래놀이 과정과 경험.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경(2008). 어린이집 영아반 실외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혜, 이은진(2000). 유아기 아동의 모래 놀이 표현 연구. 놀이치료연구, 4(2), 29-44.
- 신동주, 양연임(2003). 유치원의 실외놀이기구 실태 및 교사와 학부모의 실외놀이 인식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7(1), 93-112.
- 신유림, 김선영, 김숙이, 나종혜, 문혁준, 박진옥, 서소정, 신혜영, 신혜원, 유경애, 이미란, 조혜정(2007). 놀이지도. 서울: 창지사.
- 신은수, 김명순, 신동주, 이종희, 최석란(2004). 놀이, 발달, 유아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주희(2014). 협동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자아개념 발달에 미

- 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현정(2002). 영아의 새로운 환경의 적응 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경, 이진희(2007). 직장보육시설의 영아용 실외놀이시설 및 운영 실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3), 225-243.
- 양화숙(2010). 만2세 영아반 실외놀이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 김포시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주(2003). 모래놀이에서 소품 및 물의 제공이 유아의 놀이형태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인우(2014). 영아 교사의 정서적 어려움과 정서적 지원 요구에 관한 이야기.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수정, 김명순(2019). 어린이집 만 2세반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과 영아의 놀이행동 및 상징놀이 수준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37(1), 125-141.
- 오연주, 박진옥, 박애순(2007). 자연친화적 놀이지도. 창지사.
- 오현경, 홍용희(2012). 혼합연령 종일반 유아들의 실외모래놀이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2012(4), 168-170.
- 오현경(2012). 혼합연령 종일반 유아들의 실외모래놀이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명순(2007). 모래상자놀이를 통한 부적응 행동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양상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연, 황혜정(2015).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1-23.
- 윤미정(201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에 따른 직무 만족도 연구. 건

- 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2000).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이명희(2017). 실외 모래놀이·물놀이 활동이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옥(2015). 가정어린이집 영아의 실외놀이에 대한 어머니인식 및 요구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은(2007).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손연(2014). 동화에 기초한 실내 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정서지능,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 이봉선(2007). 어린이집 실외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영아와 교사의 바람. 유아교육연구, 27(2), 77-98.
- 이숙재(2010).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숙재(2014). 영유아 놀이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연화(2014).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외모래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녀(2014). 영아 주도의 놀이중심 숲산책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생태유아교육의 관점.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일, 이정숙, 양승희(2010). 물과 모래를 이용한 유아 놀이 활동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창의성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 10(1), 47-72.
- 이영자(2004). 유아 언어발달과 지도. 서울: 양서원.
- 이오례(2018). 영아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민감성이 교사-영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희(2004).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현(2016). 자연물을 이용한 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환경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2010).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은(2004). 2세 영아의 실외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2006). 실외 모래놀이에서 물과 보조자료의 제시유무가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정(2000). 실외놀이시설에 대한 유아의 선호도와 놀이시설별유아의 놀이형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2003). 걸음마기 영아의 실외놀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옥(2005). 실외놀이터에서 걸음마기 영아의 놀이행동과 또래 상호작용 연구. 아동연구, 11, 99-112.
- 이효진(2009). 만 5세 유아의 모래놀이 행동 및 과학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재택(2008). 생태유아교육개론. 경기: 양서원.
- 임재택, 하정연, 조채영(2002). 선생님 바깥놀이해요. 서울: 양서원.
- 장영희(1991). 유아 교육 프로그램과 놀이. 서울: 한국 어린이교육협회.
- 장영희(2000). 영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 장주희(2016). 직장어린이집 교사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과 실외놀이 운영 실태 : 서울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정(2011). 생활주제에 따른 모래놀이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남련, 최진원, 성은숙, 이은임, 김기선, 이효수, 엄은옥(2013). 영유아 놀이 지

- 도. 서울: 신정.
- 전수경(2008). 어린이집 영아반 실외놀이 운영 실태와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낙숙(1987). 상상놀이가 유아의 보존 및 조망수용에 미치는 영향 : 물놀이, 모래놀이 영역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1999). 유치원 유아들의 실외놀이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125-14.
- 정은주(2009). 가정보육시설에서의 실외놀이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2015).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 이정희, 천희영, 심미정, 황혜정, 나종혜(2005).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신정.
- 조혜경(2008). 영아의 실외놀이 연구. 보육정책연구, 4(2), 5-21.
- 조혜진(2007).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학논집, 11(2), 237-262.
- 조형숙, 주현정(2018). 유아교사가 모래놀이 교육경험을 통해 인식한 교육적 의미와 요구. 유아교육학논집, 22(3), 5-36.
- 지현숙(2012). 어린이집 영아반 실외놀이의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1998). 유아놀이지도. 서울: 정민사.
- 지혜련, 김온기(1990). 유아의 실외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문사.
- 차미열(2015). 자연물과 함께 한 실외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은영(2004). 모래놀이 활동에서 교사개입과 보조자료 활용이 유아의 발달에

-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숙, 기은옥, 장완수(2012). 실외 모래놀이 영역의 놀잇감 복합성 수준 및 놀이 시기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생태유아교육연구*, 11(2), 87-109.
- 최보람(2012). 자연 친화적 놀잇감을 활용한 모래놀이가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미(2011). 실내 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숙(2000). 탐구하며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유아과학교육. 서울: 학지사.
- 최진영(2016). 어린이집 만 1세 영아반의 모래놀이 활성화를 위한 자기 장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희(2015). 유아 흙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남(2015). 자연물과 함께하는 모래놀이가 유아의 창의성과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희(2015). 가정어린이집 실외놀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험.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경희(2003). 공격성을 보이는 유아의 모래상자놀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윤정(2009). 영아 실외놀이 경험의 교육적 의미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은주(2003). 자연환경구성활동의 교육적 의미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ullen, Joy(1993). Preschool children's use and perceptions of outdoor play area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9, 45-56.

- Frost, J. L., Wortham, S. C., & Reifel, R. S. (2001). *Play and child development*. N.I.: Prentice Hall.
- Greenman, J. (1991). Babies get out: Outdoor setting for infant toddler play. *childcare information exchange*, 21-24(May-June).
- Johnson, J. E., Christie, J. F. & Wardle, F. (2006). 놀이, 발달, 유아교육. 이진희, 손원경, 안호진, 유연옥(공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Johnson, S. E., Christie, J. F., & Yawkey, T. D. (1987).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 Kern, P., & Wakeford, L. (2007). Supporting outdoor play for young bchildren: The zone model of playground supervision. *Young children*, 62(5), 12-18.
- M. Elizabeth Graue(2014). (어린이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파워북.
- Pepler, D.J. & Ross, H.S. (1981). The effects of play on convergent and ivergent problem solving. *Child Development*, 52(4), 1202-1210.
- Perry, J. P. (2003). Making sense of outdoor pretend play. *Young Children*, 58(3), 26-30.
- Rivkin, Mary S. (1995). *The Great Outdoor; Restoring Children's Right to Play Outside*. Washington. D.C.: NAEYC.
- Stephens, K. (1993). Making the most of outdoor play: A bounty of ideas to motivate the hesitant teacher. *childcare information exchange*, 49-52(May-June).
- Van Manen(1994). 체험연구 :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 동녘.
- Wellhousen, K. (2003). 실외놀이 [Outdoor play everyday]. 신화식, 이상화, 이경희, 오은순, 이성희, 이춘자. 배지희 공역(2002). 서울: 시그마프레스.

# ABSTRACT

## Exploring the Teacher's Experience on the Outdoor Sand Playground in Young-A

Choi, Hye Wo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teachers in the process of guiding infant outdoor sand games. The research problems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positive experience of the teacher in the process of coaching the infant outdoor sand game?

Second, what is the negative experience of the teacher in the course of the infant outdoor sand game?

The study conducted participatory observ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to learn about teachers' experiences in the process of coaching the infant outdoor sand games.

By 2018, participant observation 1, 2 million from 2019 on February 22 to

Oct. 22 years old conducted 40 minutes and 30 minutes once a study on the outdoor time in the sandbox yeongaban notes prepared by the scene. He came by data. Eight teachers of daycare centers who have coached infants aged 1 and 2 and coached outdoor sand game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ducted a total of 16 in-depth interview sessions from November to January 2018 to collect data.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for 40 to 60 minutes each time by each participant of the study, and additional correspondence counseling was conducted as required.

The data collection in this study was done through the collection of documents such as participation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on-site notes of researchers, photography, daily child care journals and day-to-day education plans. The collected data were categorised and interpreted by study problem through repeated reading and analysis, which summarize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teacher's positive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guiding the infant outdoor sand play turned out to be joy sharing, joy coming from the expansion of infant curiosity, and the satisfaction from the growth of the infant. The teachers said that not only does they feel better when they see infants enjoying themselves outdoors touching and throwing sand, but they naturally share the joys of the sand games themselves. The teachers also said that the curiosity of infants was extended to the surrounding area through sand play time, which naturally expanded the playing space, and that they were said to be happy and rewarding as teachers as they were observed exploring and collecting natural objects themselves, and that they felt proud as they discovered the natural and diverse changes of infants

that appeared during sand play time.

Second, the teacher's negative experiences in the course of coaching the outdoor sand play in infants were shown to b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repeated in the course of the sand play, the burden of finishing the activity, concern about the cleanliness of the sand, and obsession with performing the role. Teachers are happy to see infants happily participating in the sand play, but at the same time, they find it difficult to be psychologically difficult due to repeated crossings of negative emotions, such as concerns about safety accidents and concerns. It also shows that the burden of finishing the activity alone by taking care of the cleanliness of infants who lack self-help skills, concern over sand cleanliness, and obsession with the role of doing something even if they watch the infant's free play.

## 부 록

###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 영아 실외 모래놀이 지도에 대한 교사의 경험 탐색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석사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대상으로 실외 모래놀이 지도 과정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경험**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면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녹음을 하고자 합니다. 면담 및 녹음을 통해 전사한 자료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 나온 모든 결과는 익명으로 보관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를 하신다면, 이 연구에 참여하는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동의서에 서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로 인해 어떠한 직간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를 참여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제시된 연구자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 권경숙  
연구자 : 최혜원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날 짜 : 201 년 월 일

교 사 명 : \_\_\_\_\_

서명(sign) : \_\_\_\_\_